

[두사부일체]

<제목 해석>

두사부일체(頭師父一體)란!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는 뜻이다

필름지

<기획 의도>

1. 이 영화를 간단히 설명하면

무식한 조직폭력배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는 코메디

2 시놉시스

이 영화는 국내 최고의 조직폭력배 영동과 두목의 좌우명에서 시작한다.

두목의 좌우명은 다름아닌 두사부일체 즉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다.

그는 가난 때문에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픈 과거를 가진 인물로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고등학교에 편입을 결심하면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된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두목의 고등학교 생활!

하지만 이 두목이 바라본 현재 우리의 사립학교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단 누구만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학생, 선생님, 학교 등 모두가 비뚤어지고 뒤틀린 우리의 교육현실.

우리는 이 배운 것 별로 없고 무식한 조직폭력배 두목의 입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3 Selling Point

철저한 반칙왕 전략!

직장인의 비애라는 명분과 프로레슬링이라는 코미디(실리)가 절묘하게 조화된 영화가 반칙왕 이라면, 우리의 영화는

교육현실 비판이라는 명분과 조직폭력배라는 코미디(실리)가 절묘하게 조화된 영화다.

무식한 조직폭력배 두목의 사립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배꼽을 잡게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는 영화! 즉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영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Selling Point**이다.

<등장 인물>

1) 조직폭력배

* 계두식(나이 **30**세, 영동파 두목)

조직폭력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서울의 핵심, 강남지역을 접수한 영동파의 두목.
두사부일체라는 좌우명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인물.

* 김상두(나이 **30**세, 영동파 부두목)

영동파 두목 계두식의 오른팔로, 조폭계에서는 보기 드문 대졸 학력의 소유자.
주먹과 지성을 겸비한 양수접장의 스타일로 영동파의 실질적인 헤드 역할을 하는 인물.

* 대가리(나이 **28**세, 영동파 부두목)

영동파 두목 계두식의 왼팔로,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말 그대로 주먹하나만을
믿고 행동하는 무식한 성격의 소유자.

2) 학생

* 이윤주(나이 **18**세)

상춘고 **3**학년 **1**반의 여학생으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꿈을 가졌으나,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꿈많은 여고생.

* 최상학(나이 **19**세)

상춘고 **3**학년 **1**반의 남학생으로 상춘고 불량씨클 일진회의 짱
계두식의 정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두식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건다.

* 김지혜(나이 **18**세)

상춘고 **3**학년 **1**반의 여학생으로, 육성회장 딸.
지는 걸 못 참는 성격으로 공부와 외모에 대해 윤주에게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

3) 선생님

* 상춘식(나이 **53**세)

재단이사장 상진만의 아들이자 현 상춘고 교장.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처럼
행세를 하는 반 도덕적인 인물.

* 살살이(나이 **45**세)

상춘고 교감. 어쩔 수 없이 교장 상춘식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며
철저히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음.

*조봉팔(나이 38세)

상춘고 3학년 1반 담임. 수학선생님. 겉으로 성격은 무섭고 터프하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교육의 현실과 이상 속에서 고뇌하는 참스승의 표본.

*이지선(나이 27세)

상춘고 영어선생님. 섹시하고 육감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꿈꾸지만 상춘식과 학생들의 엉뚱하고 무례한 행동에 갈등하는 인물.

그 외 다수.

<프롤로그>

1) 사우나 수면실 안

원적외선 조명이 은은한 사우나 수면실 내부 정경.

약 10여명의 남자들이 온갖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있다. 그때, 그 고요한 적막을 깨는 띠리리리 핸드폰 소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핸드폰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뭐야?

아이 씨. 사람들의 짜증섞인 목소리.

2) 나이트 클럽 입구(N)

고급 승용차 한대가 나이트 클럽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다. 차 안에는 운전수가 음악을 들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석에 누워있다. 그 승용차 옆으로 서너대의 고급 승용차가 멈춰서고

건장한 체구의 영동과 조직원들이 차에서 우루루 내린다.

순간! 어둠 속에서 운전석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한 사내의 손이 쑥 들어오더니, 운전사의 머리채를 잡고 차문에 쿵! 쿵! 박는다.

처참하게 일그러지는 운전사의 모습.

3) 사우나 수면실 안

띠리리리~ 핸드폰 벨이 계속 울리고.

한 두명씩 인상을 쓰며 일어나 핸드폰 소리의 주인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다.

짜증섞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수건을 얼굴위에 덮고 자는 두식을 발견한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두식의 옆에서 자고 있던 더러운 인상의 젊은 사내가 아이 씨발.
거리며 두식을 흔들어 깨운다.

*수면남 (졸라 열받은 표정) 어이, 아저씨!

그제서야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를 들은 두식, 부시시 일어나는데, 카메라,
서서히 일어서는 두식의 등 뒤에서 등판을 비추면! 그야말로 무식하고 호화찬란하게 도배된
용문신.

잠전까지만 해도 두식을 향해 짜증섞인 목소리를 내던
수면실의 사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자리에 다시 눕는다.

*계두식 (나즈막한 목소리) 응. 응. 그래, 수고했다.

4 나이트 클럽 입구(N).

작업을 마치고 나이트클럽 입구로 향하는 영동과 조직원. 각목과 몽둥이 등을 들고
영동과 행동대원 십여명이 무리를 지어 각 골목에서 나이트 클럽 입구로 몰려온다.
(강의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듯이) 그 모습에 급히 담뱃불을 비벼 끄고
나이트 안으로 튀어가는 신동방과 조직원들.

5 나이트 클럽 안

김상두를 선두로 클럽 안으로 치고 들어 오는 약 20여명의 영동과 일행.
나이트 클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영동파와 신동방파 간의 피 튀기는 액션 씬

6 나이트 클럽 입구(N)

나이트 클럽 입구에 도착하는 두식의 승용차. 두식이 검은 바바리를 휘날리며 차에서 멋지
게 내린다.
그때, 입구로 상두가 뛰어 나오며 두식을 맞이한다.

*김상두 오셨습니까, 형님?

*계두식 그래, 수고했다.

7 나이트 클럽 룸 안

룸 안에는 신동방과 두목 신동규가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듯 미동도 않은 채 바닥에 꿇어

앉아 있다.

두식이 아무 말없이 신동규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한대씩 신동규의 면상을 퍽! 퍽! 날린다.

땀이 되어 바닥에 스러지는 신동규.

*계두식 (나지막이) 걱정하지마십시오.

형수님과 아이들은 제가 잘 거두겠습니다.

쇼파에 앉아 담배를 한대 빼어 무는 두식. 대가리가 애들에게 눈짓을 하자 애들이 신동방과 두목 신동규의 사지를 잡는다. 겁먹은 얼굴의 신동규....

쑥쑥한 미소를 띠며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신동규에게 다가가는 대가리...

카메라, 대가리의 시선으로 신동규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며 화면 어두워진다.

암전상태에서 '아~~악~!' 하는 신동규의 비명이 사운드 오버 되면서 메인 타이틀!

두사부일체(頭師父一體)

I. 룸싸롱 룸 안

스테이지에서는 대가리가 컷밀에 구렛나루처럼 김을 붙이고,

머리에는 넥타이를 토끼처럼 메고 썰소를 하고 있고,

다른 조직원들 및 아가씨도 미친 개처럼 지랄 발광을 한다. 한편, 두목 계두식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한곳을 응시하며 우롱차를 컵에 따라 홀쭉거리며 마시고 있고, 두목 옆에 앉은 똑똑한 부두목 상두가

두목의 표정에서 뭔가 고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계두식 (대가리를 바라보며) 참, 대가리 졸라 크지 않냐?

*김상두 예?

*계두식 근데 대가리 아무리 크면 뭐하냐? 대가리에 든 게 없는데.

*김상두 .

*계두식 중학교도 제대로 못나왔단다. 집이 가난해서.

그래도 난 저 놈을 미워할 수가 없어.

저 놈을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애.

*김상두 형님, 이 바닥에서 형님보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아, 막말로 이 바닥에서 형님처럼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전,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계두식 .

여전히 상념에 잠혀있는 두식.

*김상두 (술을 따르며) 한잔 하시겠습니까?
*계두식 .

그때, 대가리가 비틀거리면서 양주를 쥐고 두목에게 다가온다.

*대가리 (정신없이 술에 취해) 자, 이번엔 칵테일주~~~~
(미친 듯이 맥주를 흔들며 마치 샴페인처럼 분출을 시키며)
야잇, 받아라!!!! 이년들아!!!!

맥주가 두목을 비롯해 온 사방으로 튈다.

*아가씨들 까아아악~
*계두식 (술을 닦으며 저런 땀때끼가. 하는 표정) .
*대가리 (천지도 모르고 술잔을 두목에게 건네며) 자~~~ 형님!
*계두식 (이 새끼가 미쳤나?) .
*대가리 (혀가 꼬여) 아이, 한잔 받으시라니깐~~~

술을 넘치게 따르는 대가리.

*대가리 (상황과약을 못하고) 자, 완샷! 완샷! 완샷!
*계두식 (대가리를 뺨히 쳐다본다) .

그때 두식의 핸드폰 벨이 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가리의 뒷통수를 한대 뺨! 때린다.

*계두식 (폴더를 열며) 여보세요? (놀람) 뭐?

2 시골 양육 안방 (N)

시골 한가운데 잘지은 양육의 전경이 보이고(두식이 뒷바침을 해주었음을 암시),
넓은 방안에 다 죽어가는 70대 노인이 된 두식부가 누워있고,
두식의 여동생 지영은 두눈이 텅텅 부어 끓어 앓아 있고, 그 옆에는 두식이 고개를 숙이고
끓어 앓아 있다.

*두식부 (사경을 헤멘다) 두식이 왔나?
*계두식 예, 아버지, 저 두식입니다.
*두식부 (두식의 손을 잡고) 와, 인자 왔노?
*계두식 죄송합니다, 아버지.

*두식부 잘 사나?
 *계두식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식부 니, 고등학교 졸업은 했나?
 *계두식 .
 *두식부 아직 못했나?
 *계두식 예.
 *두식부 니, 아버지 디게 밍제?
 *계두식 아닙니다.
 *두식부 미안하다, 두식아.
 *계두식 아닙니다, 아버지.
 *두식부 두식아.
 *계두식 예, 아버지.
 *두식부 니, 아버지가 부탁하나 해도 되겠나?
 *계두식 예, 말씀하십시오.
 *두식부 니.
 *계두식 예.
 *두식부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계두식 .
 *계두식 내가 그제 한이 되서 눈을 문감겠다.
 *계두식 .
 *두식부 와, 학교 땡기기 싫나?
 *계두식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식부 그래. 우리 아들은 효자 아이가. 아버지 말도 잘듣고.

3 대로변 자동차 안

운전수가 백미러로 뒷자리를 힐끗 훑쳐보면, 두식이 상념에 잠겨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승용차가 학교 앞 대로변을 지나다가 학교 앞 신호등에 멈춰 선다.
 그때, 야간자습을 마치고 학교 정문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두식.
 고개를 돌려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교실의 전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두식.

4 대회의실 (N)

한쪽 벽에 걸려있는 頭師父一體 라고 쓰여진 액자. 그 밑에 앉아있는 두식이 일장연설을 하고 있고, 영동의 행동대원들은 좌우로 일렬로 길게 나뉘어져 각을 잡고 앉아있다.

*계두식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일 동 .

*계두식 어차피 다 알겠지만 이미 짬새들이 움직인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
따라서 잠시 잠수를 타야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접수한 실비아
나이트는 당분간 상두가 관리할 것이다.

기분 졸라게 나쁜 표정으로 상두를 바라보는 대가리.

*계두식 내가 없는 동안 상두와 대가리는 아우들 잘 챙기고 너희들도
형님들 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바란다. 알겠나?

*일 동 예!

*계두식 됐다. 상두와 대가리만 남고 너희들은 나가봐라.

조직원들이 우루루 나가고,

[점프]

홀에는 두식, 상두, 대가리 세사람만 남는다.

*대가리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짬새가 뜨다니요? 이미 약 다 쳐발라
놓았는데. 그것 손 쓴다고 제가 얼마나.

*계두식 (대가리의 말을 끊으며) 종팔아, 상두야!

*대가리/ 상두 예, 형님.

*계두식 나. 학교에 간다.

어이가 없어 하는 대가리와 상두. 대가리가 상두를 쳐다보지만
상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특유의 무표정한 모습으로 두식을 바라본다.

5 대가리 사무실 (N)

대가리 꽤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대가리꼬봉! 예? 학교요?

*대가리 아, 몰라~ 씨발. 자기 아버지가 가라고 했단다.
형님 성질 알잖아. 두사부일체! 아버지가 가라했으면 가야지.

난감한 표정의 대가리 꼬봉들

6 계두식 집무실 (N)

계두식의 책상위에 각종 서류가 놓여있고, 상두가 이에 대해 설명

*김상두 아무래도 검정고시 학원보다는 마지막 학창생활도 누리실 겸 학교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두식 (상기된 표정으로 상두를 바라본다) 그래? 근데 내 나이가.

*김상두 (책상 위에 서류를 내보이며) 호적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호적등본의 생년월일을 가리키며) 1991년생 20살입니다.

*계두식 스무살?

*김상두 아, 술집가면 다 형님보고 20대 초반 같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계두식 맞아, 하기가 내가 약간 동안은 동안이지.

*김상두 (특유의 무표정으로 두식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
공립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립을 알아봤는데, 대학 진학율도 높고, 선생님들의 실력도 좋은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두식 그래?

*김상두 예, 강남 8학군에 있는 상춘고입니다.

*계두식 상춘고?

*김상두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계두식 .

*김상두 남녀공학입니다.

입이 썩 벌어지는 두식.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대가리 및 그의 꼬봉들.

*대가리 (검정고시 학원 소개서를 들이 밀며 호들갑) 형님, 제가 좋은 데 알아봤는데요, 검정고시 학원은 강사진도 우수하고 대학 진학율도 높은 노랑진쪽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국영수 중심의 단과반을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반을 해가지고, 그 뭐냐 단과반은 정일학원이 라는 데가 있는데요, 종합반은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이 좋은데 형님 실력으로는 안되니까. (횡설수설).

*계두식 (머리가 아프다) .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대가리의 뒷통수를 있는 힘껏 내려친다. 뽕!

7 이미지 컷 (N → D)

붉은 태양이 이글이글 떠오르는 일출 장면.

8 몽타주 (D)

따르릉 하는 자명종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두식의 등교 준비 장면
(화려한 CF 톤으로 박진감 있는 음악과 함께 짧은 컷 조합)

1.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올백으로 진지하게 넘기는 장면
- 2 교복 상의를 박력있게 입고
- 3 교복 하의를 박력있게 입는다. (그 옛날 혈령한 통바지)
- 4 동전 두개로 교복 바지의 줄을 세우고.
- 5 책상 위에 책가방을 탁 놓고
- 6 책가방에 책을 넣고
- 7 필통을 넣고
- 8 책가방을 닫고
- 9 책가방을 옆에 차고. (앗차!) 다시 옆에 얹전히 들고.
- 10 상두 앞에 서는 두식

철저한 언발란스! 자세는 경직되고 우스꽝스런 옷차림! 특히! 올백의 헤어스타일이 기막히다.

- *계두식 상두야, 어떠냐?
- *김상두 (무표정) .
- *계두식 왜, 이상해?

상두가 두목에게 걸어가 올백 머리카락 한 가닥을 이마 앞으로 내려준다.

- *김상두 요즘 애들, 올백 안합니다.

9 계두식의 집 현관 앞(D)

계두식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 문을 짜안~~ 열면!

1. 한눈에 들어오는 축! 계두식 고교 편입! 이라 적힌 거대한 플래카드!
- 2 두목을 학교까지 모시기 위한 거대한 리무진
- 3 일렬로 도열해 두식이 현관을 나오자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
- 4 무슨 구경이나 난 듯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는 동네 아줌마 및 애들

숨이 턱 막히는 두식! 무표정한 상두.

- *계두식 (어이가 없어) 생 쏘를 하네, 쏘를.
- *대가리 (뿌듯한 듯 리무진 차문을 열며) 형님, 어서 타시죠!

두식이 말없이 대가리 앞으로 걸어간다.

- *대가리 (헤헤거리며) 형님, 축하드립니다.

*계두식 너냐?
*대가리 (자신만만) 예! 지금 전 형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계두식 (나지막이) 나도 니가 자랑스럽다.

10 계두식의 집 마당(10)

굳게 닫힌 현관문. 계두식이 대가리를 나무라고 있고, 상두가 옆에서 특유의 무표정한 모습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계두식 (대가리의 뒤통수를 뽕뽕 때리며) 너 대가리 쓰지 마라 그랬지?
왜, 아예 축, 강패두목 학교에 가다 라 쓰지 새끼야!
강패 학교 간다고 자랑하고 다닐래? 마이크 갖다줄까?
*대가리 죄송합니다.
*계두식 하여튼, 이 새끼는 대가리만 졸라 커가지고.
*대가리 .
*계두식 잘들어.
*대가리 예.
*계두식 나는 오늘부터 상춘고의 고등학생이지, 영동과의 두목이 아니다.
난 평범한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는 길이란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가리 예!
*계두식 누구든지! 내가 조직에 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날엔!
내가 니 아가리(손가락으로 입에 넣어 양쪽으로 당기며)부터
찢어놓을거야!

아아아아~ 비명을 지르는 대가리.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한번 바라보는 두식,
다시 대가리를 한번 찢어 보면, 대가리 움찔 한다.

*계두식 .

현관문쪽으로 몸을 돌리는 두식.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폭 숙이고 있는 대가리.
몇발짝 발걸음을 떼다가 다시 돌아와 대가리의 뒤통수를 갈기는 두식. 뽕! 두목이 현관문
을 나서자

*대가리 (열 받는 듯 혼잣말) 하, 시팔. !@#%&!@#%&

두목이 대가리의 말을 들었는지 현관문으로 고개를 다시 내밀면. 움찔하며 고개를 슬며시
숙이는 대가리.

11. 대로 변(D)

대로변을 달리는 검은 승용차. 차 안에는 대가리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상두와 두식이 뒷자리에 앉아있다. 설레는 마음에 두식이 한숨을 길게 내 쉬어 보고, 천하의 두목이 긴장하는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어보이는 상두. 눈부신 햇살 아래 차창 밖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하나 둘씩 눈에 띈다. 신기한 듯 고개까지 돌려가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두식.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두식이 얼마나 설레는 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두식의 눈에 띄는 학생들의 책가방! (요즘 학생들은 다 등에 메고 다니죠?) 그리고 남학생들의 통줍은 바지! (요즘 남학생들은 다 바지 통이 좁죠?)가 자신의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다. 물끄러미 자신이 준비한 책가방과 험령한 나팔바지를 바라본다.

*계두식 야, 이 책가방 누가 샀냐?
*대가리 (고개를 돌리며 자신있게) 예, 제가 샀습니다! 그거 디게 비싼건데요, 형님 학교 가시는데 제가 가만있을 수 있어.

뻑!

*계두식 이 바지는?
*대가리/ 상두 .
*계두식 (상두를 바라본다. 너냐? 하는 표정) .
*김상두 (아뇨~ 하는 표정) .

뻑!

*계두식 너는 어제 열정은 있는데 기본이 안돼있냐, 기본이!
(뻑! 또 때리며) 응, 이 새끼야! 이 기본이 앓된 새끼야!
*김상두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새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계두식 (대가리를 보며) 저런 걸 믿고 내가 학교에 간다고.
*대가리 .
*계두식 (운전사에게) 야, 저기 애들 안보이는 데 차 세워라.
*대가리 형님, 아직 학교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계두식 그냥, 세워 이 새끼야.
*운전사 예.

잠시 후, 차가 끼익 멈추어 서고, 차에서 두식이 어색한 복장으로 내린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긴장된 표정으로 특유의 팔자걸음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두식. 그와는 반대로 밝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두식을 스쳐지나는 학생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같이 걸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자 경직된 어깨가 풀어

지고.

팔자의 어색한 발걸음이 풀어지고. 굳은 인상이 풀어지고. 학생들과. 하나가 된다.

(마치, 유주열 서스펙트 의 마지막 부분에서 카이저 소재의 발걸음이 변하듯)

바바리맨, 학생들 사이에서 광고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두식도 하나 받아들고.

그러한, 두식의 변화를 차 속에서 일일이 관찰하는 대가리와 상두.

(상두는 여전히 무표정하고 대가리는 신기한 듯한 표정)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다다다다 두식걸을 스치며 뛰기 시작한다.

뛰. 뛰야. 이 새끼들은. 라는 표정의 두식.

서서히 자신을 따라오던 대가리와 상두의 승용차를 바라보는 두식. 야, 저 새끼들은 뭐냐?

하는 표정의 두식.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표정의 대가리와 상두.

아이들이 이제 거의 모두, 다다다다 두식걸을 스치며 뛰기 시작한다.

얼떨결에 졸라게 따라 뛰는 두식.

*대가리 (상두에게) 야, 저새끼들 왜 저래 뛰냐? 아직 등교시간 많이 남았는데.

*김상두 짹새가 떴나?

12 교문(D)

투박한 손에 쥐어진 무지막지하게 큰 나무로 된 법봉(태조 왕건에 나오는.)

법봉을 쥔 팔을 따라 카메라 홀듯이 올라가면 인상 더럽게 생긴 학생주임,

조봉팔이 교문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서있고, 그 옆에는 남녀 선도부들 10여명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학생들의 왼쪽 가슴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인서트 (학교 정문 옆 담) 슬로우 모션-----

불의 전차같은 장중한 음악 깔리면서.

등교 마감 시간이 다 된 듯, 골목 커브길을 도는 학생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마치 목숨을 걸고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그 모습이 처절하다.

(역시 학생들의 왼쪽 가슴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그 속에는 두식의 필사적인 모습과 윤주의 모습도 보인다.

필사적으로 마지막 결승선(교문)을 향해 질주하는 두식과 윤주.

앞서나가는 윤주옆에 필사적으로 달라붙는 두식. 어쭈구리! 하는 표정으로 두식을 바라보는 윤주.

묘한 경쟁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시선 쏘히는 두 사람. (최초의 만남)

조봉팔, 시계를 한번 쓰윽 보더니

*조봉팔 (옆의 선도부들에게) 닫아라.

쿠구궁~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히는 교문

다시 불의 전차같은 장중한 음악 깔리면서.

교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고, 윤주, 혼신을 힘을 다해 앞으로 치고 나간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두 사람의 간격.

이때! 출렁거리는 윤주의 가방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작고 낡은 손가방.

(화장품 케이스처럼 생긴 지퍼 달린 형겅 가방) 두식, 어이! 윤주를 부르지만 윤주는 듣지를 못하고...

숨을 몰아쉬며 교문과 손가방을 번갈아 바라보려 갈등하던 두식.

-----슬로우 모션-----

두식,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손가방을 주으려 역주행한다.

동시에 우르르 두식을 스쳐 지나가는 수십여명의 남녀 고등학생들.

(마치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가 불이 난 극장으로 달려가는 역주행 장면처럼)

두식, 그들을 헤쳐나가며 윤주의 낡은 손가방을 잡는다.

뒤늦게 교문으로 달려가는 두식. 순간, 닫혀가는 교문을 통과하는 윤주. 거의 닫혀가는 교문. 두식이 교문을 통과하기 직전! 교문은 쿵 소리를 내며 닫힌다. 두식은 통과를 하지 못하고.

마치 베트남을 탈출하려는 난민들이 미국 대사관 철재 문에 매달려 애원하듯

선도부원들에게 애원하는 10여명의 남녀 학생들. 아수라장 속에서 교문 사이로 윤주를 찾는 두식.

윤주, 굳게 닫힌 교문 쪽으로 시선 잠시 두다 교실로 향해 바쁜 걸음으로 사라진다.

그런 윤주의 뒷모습을 헉헉거리며 바라보는 두식.

[점프]

두식과 몇 명의 학생들이 책가방을 위로 든 채 꿇어 앉아 있고,

그 앞으로 고풍적인 자태의 이지선 선생이 조봉팔 선생에게 간단한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

여자들은 미친년~ 하는 표정을 짓고 남자들의 눈길은 이지선 선생을 바쁘게 쫓아간다.

-----인서트 (운동장 담벼락)-----

상두와 대가리가 담벼락에 매미처럼 붙어서 두식이 지각으로 걸려 꿇어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두의 눈길은 매력적인 한 여인 이지선 선생에게 고정

*대가리 아 씨발. 저 새끼. 왜 애들을 꿇어 앉히고 지랄이야.

*김상두 (넋이 나간 표정).

뿔어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조봉팔이 서서히 걸어가며 뿔어앉은 아이들의 머리를 뽕뽕으로 때리며 말한다. 물론 남자는 세게 여자는 약하게 때린다.

*조봉팔 참, 너희는 무식한 새끼다. 야, 나같으면 이런 꼴을 당하느니 내 더러워서도 10분 먼저 일어나겠다. 너희들은 열받지도 않냐?
아침부터 이런 성질 더러운 선생한테 욕이나 쳐들어 먹고.
(경실의 머리를 때리며) 안그렇냐? 경실아?
(아이들의 머리를 딱딱 때리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들이 예, 예, 하고 대답할 때 처음보는 두식 앞에 멈춰선다.

*조봉팔 (두식에게) 넌 뭐냐? 침 보는 놈인데.
*계두식 (깜짝 놀라) 예?
*조봉팔 너 몇학년이냐?
*계두식 아, 예. 저 오늘 전학왔는데요.
*조봉팔 뭐, 전학? 이런 싸가지 없는 노무시키가 전학온 첫날부터 지각을 해!

사정없이 두식의 머리를 뽕뽕으로 내리 치는 조봉팔.
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는 두식.

----- 인서트 (운동장 담벼락) -----

이성을 잃은 대가리, 담을 넘으려 하고 상두가 말리느라 애를 쓴다.

*대가리 저런 씹새끼가. 죽을라고! @#%&
(담 밑에 있는 운전수에게) 야, 애들 불러!

13 운동장(D)

오리걸음으로 지각한 학생들과 같이 운동장을 돌고 있는 두식과 상학, 경실, 등등.
팔팔한 젊은 애들에 비해서 뒤에 처지면서 헉헉 대자,
뒤에서 따라오던 조봉팔이 두식의 엉덩이를 뽕! 하고 찬다. 카메라 팬하면,
저 멀리 운동장 담벼락에서 담을 넘으려,
그것을 막으려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대가리와 상두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인다.

14 화장실(D)

여학생들로 가득한 화장실 안. 완벽한 무다리를 드러내곤 물파스를 바르는
경실과 여드름을 짜는 여학생 등등.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변기칸 안.

*떠벌이 (경실의 다리를 바라보며) 정말 튼튼하게 생겼다.
*박경실 너두 만만치 않아~

그때, 화장실로 들어오는 윤주.

*이윤주 경실아. 생리대 있어?
*박경실 (주머니에서 꺼내주며) 칠칠맞기는. 자, 여기.
*이윤주 땡큐! 나중에 갚을게~
*박경실 화이트로 갚아라~

윤주, 변기칸을 노크하면, 문이 열리며 안에서 나오는 김지혜와 그녀의 꼬봉이다.
윤주, 기침을 쿨룩거리며 인상 쓰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지혜, 윤주를 기분 나쁘게 바라보다가 후- 하고 연기를 분다. 담배 냄새에 손을 씻는 윤주.
화장실을 나가는 지혜와 꼬봉.

*박경실 골초 같은 년. 재수없어.

다시 화장실로 들어오는 지혜와 꼬봉.

*김지혜 뭐라고?
*박경실 (우물쭈물) 내가 뭘.
*김지혜 죽어볼래? 쌍년아.
*박경실 (눈 치켜 뜨며) 뭐? 쌍년?

윤주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이윤주 (나서며) 야, 김지혜. 너무 심하잖아!
*김지혜 어쭈! 후질구레한 년들이 때로 덤비네!
*이윤주 뭐!

윤주가 지혜에게 달려가고 둘이 엉겨 붙는다. 물파스를 지혜의 얼굴에 문지르는 경실.
지혜꼬봉, 윤주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늘어진다. 여학생들 말리려 싸움에 끼어 든다.

*이윤주 아아아!

엉겨 붙어 화장실을 나가는 윤주와 지혜. 뒤를 따르는 경실. 완전 난장판이다.

15 화장실 앞(D)

오리걸음의 후유증으로 팔자걸음으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두식.
손에 손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순간. 화장실에서 밀려나오는 여학생들.
(이년아. 저년아. 욕설과 비명이 오고가고) 벽에 붙어 난장판 싸움을 바라보는 두식.
너무 무식하게 싸우는 모습이라 다가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
남학생들이 달려와 장난스레 싸움을 말리고. 그때! 교감 살살이가 나타나고

*살살이 뭐야, 이놈들!

머리채를 붙잡힌 윤주, 먼발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두식과 눈이 마주친다.
(두식과 윤주의 두 번째 만남)

16 교장실(D)

교장 상춘식이 책상에 앉아있고, 영어교사 이지선이 결재를 받고 있다.
의자에 앉은 상춘식의 치켜뜨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지선 (서류를 가리키며) 죄송합니다, 보충수업비는 다 건었는데,
졸업앨범비는 아직. 다음주 까지는 다 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식 (느끼하게 지선을 바라보며 엉덩이를 톡톡 때리며) 왜, 어제는
그냥 먼저 갔어? 기다리라 그랬잖아~

*이지선 (난처한 표정)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드렸는데, 연락이.

*상춘식 (손목을 잡으며) 어휴, 이 손 부드러운 것 좀봐. 버터를 많이
먹어서 그러나~

17 교무실 안(아침)

살살이 근처 한쪽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두식.
그 옆으로 지혜가 두식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뒤돌아 윤주와 경실을
비웃듯 한번 웃어주고는 교무실을 나간다. 두식이 윤주의 손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교무실 주위를 둘러보면, 잡담으로 아침 시간을 보내는 선생이 보이고. 스포츠 신문을 보는
선생.
그리고, 손톱을 깎는 선생도 보인다.
그리고 두식의 시선으로 교감 살살이에게 혼쫓이 나고 있는 윤주와 경실.

*살살이 학교가 니들 싸움터야? 이러는 거 너희들 부모가 알아?

*이윤주 (불만) 개들이 먼저 시빌 걸었다구요.

*살살이 닥쳐! 뭘 잘한 게 있다고 큰소리야!

이때, 교무실로 들어오는 이지선. 교장에게 한참 시달렸는지 힘없이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다리를 꼬고 앉는 지선. 하얗고 눈부신 다리가 눈에 쏘옥 들어온다.

<예쁘다는.>는 듯이 입이 벌어지는 두식. 두식에게 시선 두는 지선.

*이지선 앤 누구예요?

*남선생! 아, 오늘 전학 왔답니다.

전학생이란 말에 혼나면서 두식을 힐끔 바라보는 윤주.

그때! 윤주, 자신의 손가방을 들고 있는 두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이선생 (두식에게 다가오며) 귀엽게 생겼네~

두식의 머릴 쓰다듬는 이선생. 당황한 표정의 두식. 그때, 교무실로 들어오는 조봉팔 선생.

*살살이 (두식을 한번 힐긋 보더니 조봉팔 선생을 부르며) 어이, 조선생!

살살이 두식을 가리키며 뭐라뭐라 조선생에게 말을 건네는 사이

두식과 윤주의 말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이어진다(이거 니가 흘린거야~ 빨리 던져 이새까! 등등),

잠시 후, 조선생이 두식을 쏘아보며 천천히 다가온다.

*살살이 (두식에게) 인사해, 니 담임 선생이시다!

그 말에 얼굴이 파래지며 손에 들고있던 손가방으로 경악으로 벌어진 입을 막는 두식.

손가방을 바라보던 조선생, 고개를 빼딱하게 누이곤 슬쩍 손가방을 뺏는다.

*조선생 이건 뭐야?

*계두식 (윤주를 슬쩍 바라보다가) 그게.

조선생, 손가방 지퍼를 열면... 퍽! 하고 터져 오르는 생리대들.

윤주, 경실, 살살이, 이지선 선생 등 교무실의 모든 시선들이 두식에게 향하고

바닥에 떨어진 생리대를 줍는 이지선. 얼굴이 새파래지는 두식.

18 교실(㉠)

학생 한명이 교실 문을 닫으며 뚝! 고 말하며 후다닥 들어오고,

아이들도 웅성거리면서 제자리에 후다닥 앉는다.

잠시 후, 교실 문이 열리고 조봉팔 선생님과 두식이 들어온다.
갑자기 윤주가 책상에 고개를 푹 처박고,

*반 장 차렷! 경례!
*일 동 반갑습니다!

- 거만한 자세로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두식을 바라보는 김지혜
- 의자에 뻘뻘하게 앉아 건방진 시선으로 두식을 바라보는 최상학
- 교무실 사건에 여전에 책상에 고개를 푹 처박고 고개를 못드는 윤주
- 윤주의 앞에 앉아 호들갑을 떠는 경실 변태다, 변태. 등의 말을 속삭인다.

새로 들어온 전학생에 대한 호기심에 눈이 말뚱말뚱하는 아이들.
울썩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에 옛날 책가방을 들고있는
두식의 모습에 아이들은 킁킁대며 웅성웅성 대기 시작한다.

*조봉팔 오늘은 새로운 친구 한명을 소개해주겠다.
*일 동 .
*조봉팔 (두식에게) 계두식, 이리와!
*계두식 예!
*조봉팔 (아이들에게) 오늘 새로 전학왔다.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모든 게
힘들 테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두식에게) 자, 간단하게 인사해라.
*계두식 예.

교단 앞에서 애들을 바라보는 두식, 조직세계에서 잔악무도함으로 악명을 날리던 천하의 계
두식도
푹푹한 고등학생들 앞에서는 마음이 왜 그리 떨리는지.

*계두식 (경직되어) 계두식입니다!

단 한마디를 끝내고 꾸벅 절을 하는 두식. 병 쥔 표정의 조봉팔 선생. 아이들도 멍한 표정인
데,
갑자기 최상학이 웃음을 터트리자, 아이들의 폭소가 터진다.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는
두식,
아이들의 멀뚱멀뚱한 표정에 당황하여 선생님을 바라보면, 말을 좀더 하라는 듯한 선생님의
표정.

*계두식 (다시 아이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꾸벅 절을 하는 두식. 뒤집어지는 아이들, 순간, 뒷 자리에 앉아있던
상학이 뻘뻘한 자세로 박수를 짹 짹 치자, 아이들도 얼떨결에 따라 박수를 친다.

살짝 고개를 들고 웃고 있는 윤주.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도는 두식.

19 몽타주(D)

1. 두식이 책상위로 노트와 필통을 꺼내면 필통은 말이 필통이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필통뚜껑을 열면 조직원들이 마련해준 온갖 필기도구들. 그 속엔 똑똑한 부두목 김상두의 애교 있는 파이팅!이라 적힌 메모도 함께 있다. 그런 두식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윤주.

2 <국어 시간>, 국어라 적힌 과목이름을 **국어**로 고치는 상학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상학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식. 두식이 고개를 돌리면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태도 (한반의 3분의 2가자빠져 자고 있다.) 신기한 듯 그런 학생들을 멍청히 둘러보는 두식. 제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윤주를 결눈질 하며 눈이 마주치자 씨익 웃는 두식과 화들짝 놀라는 윤주의 모습

3 <영어시간>, **ENGL / SH**라 적힌 과목이름을 **KONGL / SH** 라 고치는 상학, 두식의 건너편 옆자리에서 책상 에 엮어져 자는 상학을 바라보는 두식. 다시 앞으로 바라보면 이지선 선생과 눈이 마주치고, 이지선 선생이 미소를 띠자 시선을 돌리는데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지혜와 눈이 마주치며 화들짝 놀란다.

4 <사회시간>, 사회라 적힌 과목이름을 **자황**이라 고치는 상학. 그런 상학을 뵈히 바라보는 두식. 상학이 뭘봐 새까?라는 표정. 화들짝 놀라며 책을 펴는 두식. 필기를 해보는 두식의 모습. 재미있는지 공책에는 마치 꼼꼼한 여학생의 공책처럼 또박또박 온갖 색깔의 글씨체가 선명히 보인다. 그 모습이 신기한 듯 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윤주. (참, 특이한 놈이네.)

5 <수학시간>, 수학이라 적힌 과목이름을 **잠수함**이라 열심히 고치는 두식. 뭔가 수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면 조봉팔이 두식을 내려보고 있다.

20 식당 안(D)

스피커에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일렬로 쭉 늘어서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김지혜(E) 안녕하세요, 상문고의 살아있는 전설, 김지혜입니다.

아이들의 우엑거리는 소리. 미친년 또나왔다. 아이 재수 없어. 등등.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생들.

두식이가 급식대에 급식판을 내민다. 두식의 급식판에 가득 올려지는 후라이드 치킨먹음직스럽다.

*계두식 입빠이 답아 주세요.

한 가득 튀김을 받아 입맛을 다시며 자리를 찾는 두식. 멀리서 두식을 부르는 상학.

*최상학 어이! 계두식!

계두식, 상학과 꼬봉이 앉은 자리 옆에 앉는다.

두식의 급식판에 가득 쌓인 닭 튀김을 멍하니 바라보는 상학과 꼬봉들.

두식, 자신의 급식판에 쏠린 시선을 의식한 듯

*계두식 내가 좀 양이 돼. (닭을 개걸스럽게 뜯으며 눈치) .

*최상학 맛있냐?

*계두식 (고개 끄덕이며) 응.

*상학꼬봉! 그거 병걸려 죽은 닭인데.

입에 치킨을 물고 멍~한 표정으로 상학폐거리를 바라보는 두식.

2. 야외 화장실 밖(0)

변기 칸에서 들려오는 구역질 소리. 그 소리에 인상 쓰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학과 꼬봉들.

*상학꼬봉! 씨발, 무슨 놈의 학교가 여름만 되면 하루도 안빠지고 답이냐?

*상학꼬봉2 씨발, 돈까스도 아마 구제역 걸려 죽은 돼지만 쓸거야.

*최상학 개새끼들. 급식비 받아서 다 어디다 쳐쓰나 몰라~

변기 칸에서 나오는 두식. 헛구역질을 한다. 두식의 앞에 상학이 담배 하나를 꼬나 물고 뼈딱한 자세로 서 있다.

*최상학 어이, 개두식!

옆에서 킁킁거리는 상학의 꼬봉들

[점프]

*최상학 이게 다야?

*계두식 응
 *최상학 너, 쉼타까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면 죽는다~
 *계두식 이게 달라니까~
 *최상학 (꼬봉들에게) 야, 뒤져봐!

상학꼬봉들이 두식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고, 이 새끼 지갑도 있네.
 잘 찾아봐 이새끼 개털아냐? 등등의 목소리가 들리고,
 두식은 이런 학생들의 모습에 기가 찬 표정을 하고 있다.
 그때! 두식의 지갑을 조사(?) 하던 상학꼬봉이 지갑 속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서너장을 발견한다.

*상학꼬봉1 야, 배추 잎파리도 있네. 이 새끼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숫자를 헤아린다) 일, 십, 백, 천, 만.
 (두 눈이 뚱그랗게 떠지며) 야. 야야.. 배. 배. 백만원짜리야

앵? 하는 표정의 두식. 100만원짜리 수표를 발견한 아이를 중심으로 뭉치, 100만원?
 어디봐, 어디봐! 진짜야? 하며 우르르 몰려드는 아이들. 난감한 표정의 두식.
 상학이 고개를 돌려 두식을 쬼려 보면

*계두식 아. 그거? 그건 그래 우리 집 전세금인데 아버지가 은행에
 부치라고 했는데, 아직 못 부쳐서. (황설수설)

상학 꽤거리 역시도 난감하다.

*상학꼬봉1 야, 씨발 이거 어찌지?
 *상학꼬봉2 액수가 너무 좀 크지 않냐?
 *상학꼬봉3 10원에 한대씩이면 백만원이면 몇대냐?
 *최상학 .
 *상학꼬봉1 저 새끼 구라아냐?
 *상학꼬봉2 구라면 어쩔건데?
 *상학꼬봉3 일, 십, 백, 천, 만.
 *최상학 .
 *상학꼬봉1 그냥 접수할까?
 *상학꼬봉2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주면 어찌지?
 *상학꼬봉3 야, 십만대다, 십만대! 저 새끼 오늘 맞아 죽겠다!
 *최상학 (꼬봉3의 뒤통수를 때리며) 조용히 좀 해라, 새끼!

그때! 상학의 다른 꼬봉이 화장실 쪽에서 달려온다.

*상학꼬봉4 야, 야! 똬다! 똬어!

후다닥 자리를 뜨는 상학과 그의 꼬봉들. 상학이 두식에게 지갑을 던지며 지나친다.

- *최상학 오늘은 첫날이라 내가 봐준다!
- *계두식 .
- *상학꼬봉1 (협박조) 야, 내일 디스나 한보루 사와라잉~
- *계두식 디스?
- *상학꼬봉2 나는 타임이다~
- *상학꼬봉3 (뒤를 돌아보며) 하~ 짜식, 생긴 거는 꼭 무슨 조폭똥마니같이 생겨가지고.
- *계두식 (찢끔 한다) .

그때, 담임 조봉팔이 화장실을 돌아 두식에게 다가온다.

- *계두식 (90도로 인사) 안녕하십니까?
- *조봉팔 너 여기서 뭐해?
- *계두식 예?

[점프]

담임, 조봉팔 선생과 나란히 소변을 보는 두식. 조봉팔, 계두식의 고추를 한참 쳐다보더니 씩 웃는다.

- *조봉팔 어때, 재미있어?
- *계두식 예!
- *조봉팔 짜식.
- *계두식 내일부터 한달간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도시락 싸오는 거 잊지 말고.
- *계두식 예.
- *조봉팔 그리고 (두식의 헤어스타일을 바라보더니) 바뀌!
- *계두식 예?
- *조봉팔 짜식이.!
- *계두식 예!

22 교문(N)

따르릉~ 수업 종소리가 울리고, 카메라, 룡샷으로 야간 자습을 마치고 교문을 우르루 빠져 나오는 상춘고 학생들을 비춘다. 카메라, 서서히 줌인 하면 그 속에 파묻혀 같이 하교를 하고 있는 두식의 모습이 보인다. (제법 학생처럼 보임을 강조) 서로 잘가! 내일 보자! 하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교문 담 옆에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고,

자기 자식들이 교문을 나오자 힘들지? 공부 열심히 했어? 등의 말을 하며 차에 태운다.
두식과 윤주도 아이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는데, 뭔가 말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윤주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23 계두식의 집 거실(N)

상두와 경비아저씨, 그리고 학생처럼 씹박하게 머리를 짧게 자른 두식 등
3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가정환경조사표의 빈칸을 기입하고 있다.

- * 계두식 내 참~ 내가 학교 다닐 때 켈 싫어하던 게 이거였는데.
부모 직업. 여기는 뭐로 적냐?
- * 김상두 음~ (잠시 생각) 건설업으로 하시죠.
- * 계두식 건설업! 아 그거 좋다! 건. 설. 업. 직위는?
- * 김상두 아무래도 사장님이 좋지 않겠습니까?
- * 계두식 그래. 사. 장. 님. 좋다! 김씨, 좋겠어~
- * 경 비 감사합니다. 사장님!
- * 김상두 저, 형님!
- * 계두식 왜?
- * 김상두 (직위란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넘자는 빼십시오.
- * 계두식 아, 그렇지. (지울 것을 찾다가) 야, 필통!
- * 김상두 (필통을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두식이 필통에서 화이트를 꺼내 툭툭! 누르며 넘자를 지운다.

- * 김상두 (대견스러운 표정) 그게 뭐니까?
- * 계두식 짜식, 화이트도 모르냐? 화이트?
- * 김상두 화이트? 그건 생리대 이름 아십니까?
- * 계두식 짜식, 이것도 화이트야! 어찌 대학나온 놈이 그것도 모르냐?
- * 김상두 (당황한다) 우리 대학 다닐 땐 그런 것 없었습니다.
- * 계두식 됐어, 자, 다음은 월수. 어이 김씨!
- * 경 비 예, 사장님!
- * 계두식 김씨 월수가 한 얼마쯤 돼지?
- * 경 비 예, 한 80만원쯤 됩니다.
- * 계두식 팔십?
- * 경 비 예.
- * 계두식 그것 밖에 않돼?
- * 경 비 예.
- * 계두식 김씨 월급 누가 책정했어?
- * 경 비 예, 대가리 부사장님께서.
- * 계두식 하아~ 새끼. 대가리만 무식한 줄 알았더만 썩 나쁜노무

시키구만. 상두야!

*김상두 (화이트를 계속 만지작 거리다가) 예, 형님.

*계두식 우리 김씨 월급 이제 니가 챙겨라.

그래도 내 아버진데 팔십은 너무하지 않냐?

*김상두 예, 알겠습니다.

*계두식 하여튼 이 대가리 새끼.

24 고급 일식집 주방(N)

대가리가 어느 식당 주방에서 사시미칼로 손톱 정리를 하고있다.

흰 가운데 흰 모자를 쓴 주방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고,

보조 주방장도 옆에서 경직되고 긴장된 표정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 인서트 -----

1. 불 위에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연어 스테이크
- 2 후라이팬에는 감자 튀김이 튀겨지고
- 3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열심히 만들어 지고 있는 초밥
- 4 후파이팬을 날리면 공중으로 오르는 감자 튀김.
- 5 거대한 도시락 통에 야채가 보기 좋게 채워지고

*대가리 (담배를 꼬나 물고) 야, 좀 정성 들여 해라~

*주방장 예!

25 윤주의 집 골목(N)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조봉팔 선생과 함께 힘들게 오르고 있는 윤주.

피곤한 듯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하악~ 하고 숨을 한번 쉬는 조봉팔 선생

*조봉팔 (헉헉대며) 윤주야, 좀 쉬었다 가자.

*이윤주 (같이 헉헉대며) 계단이 좀 높죠? 헉헉.

계단 아래 펼쳐진 화려한 서울의 전경.

*조봉팔 경치 좋다~

26 계두식의 집 거실(N)

상두와 두식, 그리고 경비아저씨 **3**명이 가정환경조사표를 완성!

- * 계두식 (불펜을 놓으며) 야~ 끝났다!
- * 김상두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 * 경 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 * 계두식 (가정환경조사표를 들고) 야~ 참 공부 한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만.

21 윤주의 집 밖(N)

한쪽은 뒤집어져 벗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뒷굽이 다 닳은 낡은 조봉팔의 구두.
동네 똥개가 어지럽게 벗어진 조봉팔의 구두에 코를 킁킁거린다.
윤주, 다가가 겁을 주면 후다닥 달아나는 똥개.
조봉팔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조금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바라보면
조봉팔과 윤주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2 윤주의 집 단칸방(N)

인형 눈깔을 끼우고 있는 윤주의 엄마. 조봉팔의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는 듯 하다.
성심을 다해 윤주의 진학에 대해 설명하는 조봉팔.

- * 조봉팔 (걱정하지 말라는 듯 어머니를 달래며)
- 어머님, 요즘은 특차진학이라는 게 있어서 윤주 정도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말이 부담스러운 지 방바닥에 누워 발가락으로 엄마 일을 방해하는
어린 윤주 동생의 발을 손으로 찰싹 때리는 윤주 엄마.

- * 윤주모 아마 선상님이 자꾸 대학 야그해서 허파에 바람 든거유.
(문 밖에서 바라보는 윤주에게 시선두며) 꿀값말고 취직해서 돈이나 벌 생각해.
이년아~ 대학은 무신.

조봉팔, 윤주를 바라보면. 윤주, 씩씩한 표정 짓다가 자리를 피하며 화면 어두워진다.

23 계두식의 침실(D)

따르릉~ 자명종이 울리고. 다시, 자명종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두식.

그때, 상두가 방으로 들어온다.

*김상두 (이불을 걷어 내며) 형님! 학교 가야하죠.

애기처럼 이불을 부여 잡으며 귀엽게 투정을 부리는 두식.

30 계두식의 부엌(D)

부시시한 잠결에 아침을 먹고 있는 두식. 옆에는 상두가 서있다.

*계두식 (아침마를 보고) 이 아주머니는 누구냐?

*계두식 아, 형님 오늘부터 도시락 싸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두식 참, 맞아!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김상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 다 해 뒀습니다.

상두가 아줌마에게 눈짓하자 아줌마가 정성들여 싸 도시락을 내놓는다.

*김상두 한번 열어 보십시오.

*계두식 (도시락 뚜껑을 열며) 야~

밥을 담은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가 얹혀져 있다.

*계두식 (감동) 짜식.

그때,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는 대가리.

양 손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고급 도시락이 비닐에 싸여 있다.

*대가리 형님, 일어나셨습니까?

*계두식 (비닐 백을 발견하고) 그거 뭐냐?

*대가리 아, 형님 오늘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계두식 .

*대가리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반찬 한번 보십시오. 찐!

정신없이 도시락을 여는 대가리, 말 그대로 초 호화판이다.

대가리가 자랑스런 마음에 고개를 들어보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31 고급 승용차 안(D)

승용차 안에는 옛날 책가방과 헐렁한 바지가 요즘 아이들거로 바뀐

두식이 상두와 대가리와 함께 앉아 있다. 대가리는 아침에 자신이 싸운 도시락을 꾸역꾸역
쳐먹고 있다.

*계두식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먹어~

[점프]

두식, 창 밖을 보면 담배를 피고 가는 한 남자가 눈에 띄고,

*계두식 (갑자기) 야, 차좀 세워봐!

*대가리 (밥을 계속 먹으며) 왜요?

*계두식 야, 너 나가서 담배 한보루 사와라.

*대가리 담배요? (차에서 내리며) 던힐이죠, 형님?

*계두식 아니, 디스 한보루 사와라.

*대가리 디스요? 형님 던힐 피시.

*계두식 빨리 갔다와, 시간 없어, 임마!

32 야외 화장실 뒷편 공터(0)

두식의 앞에 상학이 담배 하나를 꼬나 물고 빼박한 자세로 서 있고, 두식이 경직된 자세로
서있다.

*상학꼬봉2 (두식의 머리를 쥐어 박으며) 타임은 왜 안사왔냐고, 이 새까!

*계두식 (억장이 무너진다.) .

*상학꼬봉1 (두식의 머리를 쥐어 박으며) 야, 너 난 개 줄로 보이냐?

어, 그래 나는 만만하다, 이거지?

두식의 대가리를 퍽퍽 때리는 상학꼬봉1. 억장이 무너지는 두식.

*계두식 (상학에게) 어이, 친구들! 나 정말 부탁 하나만 하자.

나 진짜 여기 어렵게 들어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나 이번에는 꼭 졸업장 따야된다고~

가짚다는 듯 킁킁거리는 상학 일당.

33 매점(0)

매점을 청소하는 윤주, 경실, 떠벌이, 그리고 두식.

윤주와 두식은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고,

경실은 성의 없이 대걸레질을 하며 건들건들 대다 피곤한 듯 의자에 털썩 주저 앉는다.

*떠벌이 그래도 우리반은 좀 낡지. 옆반에 지영이 있잖아,
개는 어제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박경실 왜?

*떠벌이 이지선 그 년이 집까지 찾아왔대.
보충수업비 왜 않내냐고? 그년 미친년 아니냐?

*박경실 야, 그런 말 하지마라. 그 년도 알고 보면 불쌍해~ 교장한테
몸까지 팔면서 선생질 한번 해보겠다고 아등바등대는 년인데.

*떠벌이 하기사, 졸업앨범비 안내면 주소랑 전화번호도 안내주는 학콘데.

매점에서 그날의 매상을 정리하는 아줌마. 유리창 너머로 애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유리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고함친다.

*매점너 애, 놀지 말고 좀 정성 들여 해! 넌 걸레질이 그게 뭐야?

입이 빠죽 나오는 경실, 시팔시팔거리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윤주, 대걸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양동이를 들고 매점을 나간다.

*매점너 아니.

밖으로 나오려는 듯 고개를 걷어 들인다

*이윤주 (두식에게) 야, 계두식!

*계두식 (고개를 들고) ?

*이윤주 물뜨리 같이 가자.

*계두식 (주위 아이들의 눈치를 한번 보고 슬그머니 따라 나선다)

그때, 매점 밖으로 뛰어 나오는 매점 아줌마.

*매점너 (매점을 나가는 윤주를 향해) 야! 너 몇학년 몇반이야!

*박경실 (그런 매점너를 보고 혼잣말) 지랄하네, 몇학년 몇반?
미친년 십팔반이다.

34 수돗가(D)

두식과 경실이 수돗가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다.

두식은 수돗물을 받으며 드넓은 운동장을 바라보며 뭔가 뿌듯한 표정을 짓고,
옆에서는 윤주가 열 받은 듯 혼자 종알종알 댈다.

*이윤주 일이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여기가 무슨 지네들 식구 놀이터 줄 아나?
매점까지 자기네 식구들끼리 다 싸구 해먹구.
*계두식 .

여전히 혼자서 씹씹거리는 윤주. 그런 윤주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는 두식.
두식이 고개를 돌려 운동장쪽을 바라보면 저멀리 바쁜 걸음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이
지선.
뛰어가면서 가슴의 리본을 떼다. 문득 윤주의 가슴에 달린 검은 리본을 발견한다.

*계두식 (리본을 바라보며) 저.
*이윤주 왜?
*계두식 이 리본은 뭐냐?
*이윤주 아~ 이거? (픽 웃으며) 내 참.
*계두식 .
*이윤주 재단이사장 장모가 죽었대~

35 커피숍(D)

잘 빼 입은 양복 차림으로 이지선 선생과 마주 앉아있는 상두.
이런 상두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선생.
이선생의 앞엔 커다란 안개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이지선 동생하고는 별로 안 닮았네요.
*김상두 아, 예~ 두식이한테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지선 두식이가요?
*김상두 아니,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 제일 좋으시다고.
*이지선 아니에요, 실력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상두 하하~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미모까지.
*이지선 (얼굴 홍조 띠며) 제가 뭘.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는 상두

*김상두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아, 예. 제가 보기에 두식이가 다른
과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영어가 조금 약합니다.
*이지선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상두를 바라본다) .

(구석에 앉아 있던 바바리맨, 봉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본다.)

[점프]

주변을 살피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다시 챙겨넣는 상두.

*김상두 별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지선 (말을 끊으며) 말씀만이라도 고맙네요.

*김상두 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지선 예?

*김상두 (명함을 건네며)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지선 네~

*김상두 제가 뭐 선생님께 해드릴 거는 없고, 뭐 혹시 돈 빌려준 것 있는데 못받았다거나.

지선이 이상한 표정으로 상두를 바라보면, 앗차! 하는 상두 특유의 무표정한 눈빛이 허공에서 만난다

36 운동장(N)

따르릉 울리는 수업 종소리와 함께.
윤주와 경실, 두식이 하교를 하는 듯 정문으로 우루루 몰려 나온다.

37 버스 정류장(N)

버스 정류장에서 하드를 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윤주와 경실, 그리고 두식.

*이윤주 오늘도 아르바이트야?

*박경실 맨날 그렇지 뭐.

버스 한대가 오자 경실이 차에 올라 탄다.

*박경실 (뛰어 나가며) 먼저 갈게~

하며 또다시 두식에게 야릇한 시선을 보내는 두식. 경실이 버스를 타자 온몸을 부르르 떤다.
버스 정류장에는 두식과 윤주 두사람이 남고.

*계두식 저. 지. 집이 어디야?

*이윤주 신사동.

*계두식 그래? 나도 신사동인데.

*이윤주 은평구 신사동이야.

*계두식 은평구?

*이윤주 응, 왜?

*계두식 (얼떨결에) 그래? 나도 은평구 신사동이야~

38 버스 안(N)

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 안. 두식과 윤주도 다른 아이들처럼 흔들리는 버스에 서서 간다.

*계두식 (어색하게) 경실이는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해?

*이윤주 응

*계두식 그럼 공부는 언제 하나.

*이윤주 그래도 너보다는 잘해.

*계두식 .

그때, 30대 초반의 인상 험하게 생긴 놈 하나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올라탄다.

*강매남 실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렬하는 태양아래 한 마리 목마른 사슴이 웅달샘을 찾듯

정처 없이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진 지 어언 30년!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길 잡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

라도 꼬뿌가 없으면 못 마시듯이, 삭막하고 험한 세상이라도

용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큰 형님의 . (후략)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진

룸싸롱 살인사건의 주동자로써 1998년 서울 고등법원 윤주환

판사님으로부터 10년의 형기를 언도 받고. (후략)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윤주. 그런 윤주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는 두식.

손님들을 향해 온갖 인상을 쓰며 강매를 하는 강매남.

서서히 사람들을 밀치면서 뒷 쪽의 두식과 윤주에게 다가온다.

그때, 강매남의 눈이 두식과 눈이 딱 마주치고는 헉! 게거품을 문다.

두식이 췌! 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라고 고개를 살짝 젓는다.

찬찬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강매남.

침을 꿀덕 삼키더니 후다닥 하차문 쪽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난다.

*강매남 아저씨! 문 열어요! 아저씨, 문!! 빨리요!!!

39 대로 변(N)

버스가 멈춰 서고 급히 차에서 내리는 강매남. 버스가 출발하자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강매남 (말까지 더듬으며) 씨씨씨씨팔..
오늘 와와완존히 좇됐뻔 했네. 헉헉

40 단란주점 앞 (N)

조봉팔, 이지선 선생을 비롯한 몇몇 선생들이 단란주점을 나오고 있다.
이미 교장 상춘식은 많이 취한 상태.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데 상춘식이 추태를 부린다.

*상춘식 (지선의 팔을 잡아 끌며) 이선생은 내차 타!
*이지선 (다른 선생들의 눈치를 보며) 아뇨, 저 택시타고 가면 되요.
*상춘식 (떼를 쓴다) 아이, 내차 타라니까! 내가 바래다 줄게!

보다 못한 조봉팔이 지선의 팔을 끌며 말리는데

*조봉팔 교장 선생님, 많이 취하셨는데 그냥 들어가시죠.
이 선생은 저희하고 한잔 더 하고.
*상춘식 (막무가내) 아이, 지금 시간이 몇신데 한잔을 더해?
(지선을 차에 밀어 넣으며) 자, 자, 내가 바래다 준다니까 그러네.

조봉팔이 말려보지만 이미 지선은 차 속에 밀려 들어간 상태.

*상춘식 (차문을 닫으며) 자, 자, 출발하자고!

교장 차가 부르르릉~ 소리를 내며 출발한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가슴이 턱 막히는 조봉팔 및 선생님들.

41 나이트 안 (N)

나이트 구석진 자리에 모여 있는 신동방과 조직원들.
그 중 신동방과 두목 신동규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는 강매남
(아까 버스에서 두식이를 만났던 인물). 신동규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화면 어두워진다.

42 교무실 (D)

상춘식 교장과 교감이 살살이가 중앙에 앉아있고 전교사가 좌우로 도열해 서있는 교무실 풍

경.

분위기 짝- 가라앉은 것이 심각한 회의 중 인 듯 싶다.

*상춘식 에.. 재단에서 특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선생1 (속삭거리며) 이번엔 또 뭐야.

*여선생2 갑부터 나.

*상춘식 (눈빛 반짝이며) 누가 떠듭니까!

분위기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다.

*상춘식 공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 상춘 재단에서 운영중인 상춘 병원이 있다는 건 모든 선생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춘 병원 진료 과목 중에 유독 적자를 변치 못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부탁했는데.

*살살이 (입을 맞춘 듯) 무슨 과목입니까?

*상춘식 비뇨기과입니다. 비뇨기과. 그래서, 재단에선 아주 특별히! 이번 기회에 학생 단체 포경 수술을 권유하고 있어요.

조봉팔의 얼굴이 굳어진다.

*남선생1 궁쥘니까?

*상춘식 세상에 공짜가 어딴습니까?

*남선생1 하지만, 교장 선생님. 포경 수술 받으면 며칠 학골 못 나올텐데요.

*상춘식 (뻔뻔하게) 군대에선 포경 수술 받고 훈련 다 받습니다.

*조봉팔 자율적으로 권유하는 겁니까?

*상춘식 (불쾌) 이봐요. 조선생.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실적을 올리세요. 실적을! 재단이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진다는 걸 왜 모릅니까?

상춘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할말을 잃은 선생들. 잠잠해진다.

*상춘식 참, 그리고 남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안 한 분들도 신청하시고 여선생님들도 이번기회에 부인병 검사 같은 것도 한번 받아봐요.

불만 가득한 선생들, 말은 못하고 속앓이 하는 듯 한 표정 짓는다.

43 상춘 병원 비뇨기과(D)

줄줄이 서있는 상춘고 남학생들로 바글거리는 비뇨기과 안. 심란한 얼굴의 두식.

사타구니가 불룩해진 상학이가 인상을 벽벽 긁으며 나오고 간호사 차트 들고 뒤따라 나온다.

*간호사 다음 계두식 학생.

계두식, 마음 굳게 먹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숨을 몰아 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두식.

암전에서 들려오는 두식의 비명소리.

44 거리(D)

줄줄이 비엔나 쏜세지 마양 줄을 서서 학교로 향하는 상춘고 학생들.

어기적거리는 걸음새로 보아 전부 포경 수술을 받은 듯 하다.

이때,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은 두 명의 섹시한 여자들이 지나간다.

멍하니 여자들을 바라보는 상춘고 남학생들. 갑자기 사타구니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한다.

두식, 갑자기 주머니에서 귀후비개를 꺼내 귀를 막 후빈다.

바바리맨, 비둘기 모이를 주며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5 교실(D)

드문드문 빈 자리가 보이고, 일부 아이들은 책상에 퍼져 잠을 자고,

남학생들은 전부 사타구니가 볼록 튀어 나온 채로 허릴 굽히지 못한 채 힘들어 한다.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상학과 이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윤주.

*최상학 풀리면 죽는다. 풀리면 죽는다.

그때, 교감 살살이가 교실문을 짜악 열고 들어온다.

[점프]

앞에 아이들이 세부류로 꿇어 앉아 있고, 윤주와 경실은 반대편에 따로 꿇어 앉아 있다.

살살이가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출석부로 머리를 툅툅 때리며 야단을 치고 있다.

남학생들은 전부 사타구니가 볼록 튀어 나온 채로 허릴 굽히지 못한 채 힘들어 한다.

*살살이 야, 이놈들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나서야겠니?

아, 그거 돈이 얼마된다고 앨범비 안내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켜? 너희들땀에 너희 담임이 얼마나 곤란한 지 알아?

반대편에 따로 꿇어 앉아 있던 윤주와 경실에게 다가가는 살살이. 두식의 마음도 편치 않다.

*살살이 (서류를 보더니) 이것들은 보충수업비도 안내고.

도대체 몇 달 치 밀린거야. 하나, 둘, 셋. 너희들은 둘이 잤냐?

상민수와 김지혜를 비롯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지고.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두식.

*살살이 (출석부로 머리를 툭툭 때리며) 짜식들이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냐, 양심이. 보충수업비 내라고 한 지가 언젠데.
너희 담임이 그러고도 가만히 있대?
짜식들이 지킬건 지켜야 할 것 아냐?

또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두식, 도저히 교실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때, 교실 앞 문이 열리면서 담임 조봉팔이 들어 온다.

*조봉팔 뭘니까?
*살살이 (당황) 아, 조봉팔 선생!
*조봉팔 (애들에게) 일어서!
*살살이 어이, 조봉팔 선생! 다른 게 아니고.
*조봉팔 (버럭) 빨리 들어가!

우루루 자기 자리로 가는 아이들. 난처한 표정의 살살이.

46 교무실(D)

상춘식 교장과 살살이가 학생들 성적표를 책상 위에 놓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상춘식 김지혜 수학 성적이 왜이래?
*살살이 .
*상춘식 아냐, 수학 성적이 이래 나빠서야 특차를 어떻게 들어가?
지혜 수학 담당이 누구야?
*살살이 저, 조봉팔 선생.
*상춘식 참나...
*살살이 아시잖습니까? 조 선생 성격...!
*상춘식 (화를 내듯) 뭐요? 누군 성질 없어서 이리고 있는 줄 알아?
하여튼 그 새끼는 일생에 도움이 안돼, 도움이.
돈이라도 못거두면 이런 거라도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냐?
*살살이 .
*상춘식 아 막말로 재단 이사랍시고 매년 수천만원씩 학교에 갖다
바치는데. 자식 성적 이래봐, 누가 학교를 도와주겠어?
안그래? 지혜 동생도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지혜 성적 이래가지고 그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봐.
지혜건은 당신이 책임지고 처리해봐!
*살살이 예.
*상춘식 그리고, 그 새끼는 왜 리본 안달아?

41 교실(0)

아침 자습을 하고 있는 3학년 1반의 아이들. 드문드문 빈 자리가 보이고.
일부의 아이들은 책상에 퍼져 잠을 자고.
민수의 자리에서는 윤주가 허리를 굽혀 친절하게 문제설명을 해주고있다.
윤주의 그런 아양(?)을 떠는 모습에 속이 상하는 지혜

- *지혜친구1 아이, 재수없어. 계집애가 공부 좀 한다고 온갖 티는 다내고있네.
- *김지혜 들었냐? 재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 직업 뭐로 적은 줄 알아?
- *지혜친구1 뭐라 적었는데?
- *김지혜 건설업!
- *지혜친구2 건설업? 재 아버지 부도나서 요즘 노가다 한다던데.
- *김지혜 내말이 그말 아냐~ 노가다가 건설업이냐?

자기들끼리 킁킁대는 김지혜 일당.

- *김지혜 (두식을 바라보며) 야, 재 어떠냐?
- *지혜친구1 누구? (두식을 바라보고) 새로 전학온 애?
- *김지혜 응, 괜찮지 않냐?
- *지혜친구2 괜찮기는? 촌스럽구만.
- *김지혜 순진하게 생겼잖아~ 집도 잘 산대~
민수한테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은가봐~
- *지혜친구1 그래? 보기에야는 꾸질꾸질해 보이는데.
- *김지혜 남자답게 생겼잖아.
- *지혜친구2 어머, 애좀봐~
- *김지혜 재, 짝했어! 앞으로 재 건드리지 마.
- *지혜친구1 어머머, 이년이 미쳤나봐. 민수 나두구.

자기들끼리 킁킁대는 김지혜 일당.

2 두식의 자리

상민수의 자리에서 문제를 가르쳐 주는 윤주를 멍하니 바라보는 두식.
그때, 지혜가 다가가 쪽지 하나를 슬며시 던지고 지나간다.
이게 뭐여? 하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는 두식

43 방송실(0)

어두운 방송실 안으로 두식이 문을 뚫어 열고 들어온다. 사방을 두리번 거리는 두식.

그때, 지혜와 지혜 꽤거리들이 창가에 기대서있는 모습이 두식의 시야에 잡힌다.
지혜는 창가에 치마를 걸어 올리고(마치 두식을 유혹하려는 듯) 기대 앉아있다.

*김지혜 (요염하게 고개를 돌리며) 왔니?
*계두식 (화들짝 놀란다) 으. 응.
*김지혜 이리 와봐.
*계두식 .
*김지혜 사내자식이 쫄기는.
*계두식 근데 왜 불렀어?
*김지혜 왜 불렀을 것 같애?
*계두식 .

버럭, 두식의 입에 키스하는 김지혜.
그녀의 손이 두식의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오더니 두식의 사타구니에서 멈춘 후,
갑자기 우왁스럽게 짹! 움켜잡는다.

*계두식 (비명) 으아아악!

두식. 바로 자리에 고꾸라지며 사타구니를 감싸쥐며 얼굴이 일그러진다.

*김지혜 왜 그래?
*계두식 (식은 땀을 흘리며) 아, 아냐.
*지혜친구1 애, 고자 아냐?
*지혜친구2 그러게~
*김지혜 차식, 너, 이제 내 꺼 된 거야.
*지혜친구1 어머~ 우리 두식이 완존히 봉잡았네~
*계두식 .
*김지혜 너,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
*계두식 아니.
*김지혜 그럼 너!
*계두식 .
*김지혜 앞으로 나 깔따구 해.
*계두식 .
*김지혜 (다시 키스하려 접근 하며) 왜, 싫어?
*계두식 아니, 근데.
*김지혜 왜?
*계두식 나, 좋아하는 애 있는데.
*김지혜 뭐?

[점프]

담배를 꼬나물고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는 지혜와 지혜를 둘러싼 지혜친구들

*지혜친구1 씨발~ 윤주 이년 하는일마다 태클걸고 지랄이야?
 *지혜친구2 천하의 김지혜가 별 거지 같은 존만이한테 물을 다먹네
 *김지혜 아... 씨발닥쳐! 지금 나 가지구 장난까냐? 재밌어?
 존나 사람 병신 만들어라?

친구들을 뒤로 한채 방송실을 나오는 지혜..

49 교실(D)

철판에 적힌 이름.. 주변 이윤주/ 계두식. 두식이가 분필을 든다.
 이윤주라고 간결하게 적힌 이름을 지우고 최선을 다해 이윤주라고 적어보지만, 뽀뽀뽀이
 다.
 <어렵네>라는 표정으로 창가로 다가가는 두식. 분필로 휘저어 이름을 지워버린다.
 밀대와 청소도구 들고 윤주 등장. 철판 앞으로 다가가 이름을 지우고 다시 계두식의 이름을
 써준다.

[점프]

창 밖으로 머털 내밀고 밖을 바라보는 윤주. 두식이가 고개를 돌려 윤주를 바라본다.
 윤주, 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시선 꺾임 느끼곤. 두식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피익- 웃는 두 사
 람.

*이윤주 정말 지혜랑 키스한거야?
 *계두식 (변명) 안했어.
 *이윤주 애들이 봤다던데?
 *계두식 (조금 강력한 변명) 당했다니까~
 *이윤주 가만히 있었다고 하던데.
 *계두식 아니라니까~ 갑자기 확 덮치는 바람에.
 *이윤주 치- 아무튼 지혜도 대단해.
 *계두식 뭐가?
 *이윤주 별명이 키스걸이잖아~
 팬찮은 우리학교 남자 애들 한번씩은 다 당했을걸~
 *계두식 키스걸?
 *이윤주 응. 몰랐냐?
 *계두식 응, 그럼 윤주 넌 별명이 뭐야?
 *이윤주 (잠시 고민) 재수
 *계두식 재수?
 *이윤주 (답답하게) 나처럼 돈 없고 뺨 없는 애들. 재수없잖아...

두식, 기분이 씩씩하다.

영어 수업시간. 다시, 이지선이 칠판에 중요한 문장 여러 개를 열심히 쓰고 있고, 두식도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다.
그때, 김지혜가 두식에게 보낼 쪽지를 쓰면서 아이들과 떠들고 있는데.

계두식, 오늘 밤 9시에 방송실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김지혜

그 옆에 앉은 곱슬머리의 한 남학생이 뭔가 하고 기웃기웃댄다. 그때! 뒤를 돌아보는 영어 선생.

여전히 옆자리의 지혜를 기웃거리는 곱슬남!

*이지선 (곱슬남을 가리키며) 야! 너 나와!
*곱슬남 (바로 앉으며 아이 씨발.) .
*이지선 나와!

김지혜를 쬼렐보고 씨발씨발 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가는 곱슬남. 지혜와 그 일당의 비웃음.

*이지선 복도로 나가!
*곱슬남 저 아닌데요~
*이지선 그럼 누구야?
*곱슬남 (차마 고자질은 못하고) .

그때, 뒤에 앉은 상학이 오버를 하며 손가락으로 김지혜를 가리키고, 영어 선생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이지선 (김지혜에게) 김지혜 나와!

고소하다는 듯 쾌재를 부르는 상학. 누명이 벗겨진 것에 멍청한 미소를 씨익 지어 보이는 곱슬남.

빼딱한 자세로 선생님을 노려보는 지혜.

가짚다는 듯 싸가지 없이 자리를 발딱 일어나

선생님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설렁설렁 앞으로 걸어 나가는 김지혜.

*이지선 (화가 난다) 빨리 안 나와?
*김지혜 (빈둥거리며 혼잣말) 지랄하네, 걸레 같은 년이.

그런 지혜의 모습에 영어 선생은 열이 받는다. 앞으로 나온 지혜에게

*이지선 방금 뭐라 했어?
*김지혜 (두 눈을 똑바로 치켜 뜨고) 아무말 안했는데요.
*이지선 뭐?

그 싸가지 없는 모습에 영어 선생님은 김지혜의 뺨을 때린다. 짹!

51. 훈도실(D)

살살이가 조봉팔 선생 앞에서 나무라듯 부탁하듯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고,
책상 앞에 앉은 조봉팔 선생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있다.

*살살이 (담배를 한대 피우며) 아, 조선생, 그리 독불장군처럼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오. 아 막말로 나나 조선생이나 다 여기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월급쟁이 아니오, 위에 잘못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소?

*조봉팔 .

*살살이 내 조선생한테 이런 말 한다는 자체부터가 나도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이 어찌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가겠나?

*조봉팔 .

*살살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그냥 내 얼굴봐서라도 이번 한번만 딱 눈감고
그렇게 하소.

*조봉팔 .

*살살이 (일어서며) 나, 조선생만 믿고 먼저 일어나네~

52 화장실(D)

화장실에서 엉엉 울며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 지혜.

*김지혜 (엉엉 울며) 진짜라니까! 그 년이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엉엉.
그래! 뺨을 맞았다니까! 막 쌍욕도 하구. 그래!

53 훈도실(D)

살살이가 훈도실 문을 닫고 나간 텅빈 공간.

자리에서 일어난 조봉팔 선생이 힘없이 창가로 다가간다.

운동장에서는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망연자실한 조봉팔 선생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고. 후우~ 하고 내뿜다.

54 교실(D)

영어 수업시간. 이지선이 아무일 없는 듯 교단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

----- 인서트 -----

복도를 휘저으며 빨리 뛰어나가는 거친 아줌마의 발걸음

그때, 교실의 문이 확 열리고,

*지혜모 너, 이년 이리나와!

아줌마가 영어 선생님에게 득달같이 달려 들어 먹살을 잡고,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 나가 아줌마를 말리고,

잠시 후엔 옆 반에 있는 선생님도 달려와 아줌마를 말린다.

이 어이없는 장면에 어안이 병병한 두식.

55 교무실(D)

아까 교실에서 난리를 쳤던 학부모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광분하고 있고,

이지선은 옆에서 복장이 만신창이가 된 채 선생님들의 저지를 받으며 씩씩거리고 있다.

*지혜모 너 이년, 왜 애를 때려! 왜 남의 귀한 자식을 때리고

지랄하냐고! !@#\$\$%&*(!@#\$\$%&*(!

그런 학부모의 행동에 혼잣말로 분을 삭이지만 별다른 제제를 못 가하는 교무실 안의 선생님들

56 교실(D)

분위기가 썰렁해진 교실. 선생님이 없는 교실 안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아이들

*최상학 하여튼 싸가지 없는 년이 분위기 썰렁하게 하네.

57 학교앞 건물 옥상(D)

건물 위에 검은 선글라스 차림의 한 남자가 바바리코트를 입은 채 학교를 향해 엄숙히 선다.

의문의 남자가 버버리코트 주머니 안에서 담배를 한대 빼어 문다.

멋있는 폼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곤 연기를 한모금 뿜어내는 남자.

58 교무실(D)

아직 성이 풀리지 않은 학부모와 이번에는 조봉팔 선생과의 맞고함이 이루어 지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리고 아수라장이다.

*조봉팔 (흥분) 뭘 잘한 게 있다고 학교에서 행패야, 행패가!

선생들이 뭐 동네 북이야! 에미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이 그런 거 아냐!

*지혜모 아니, 저 새끼가 찢어진 입이라고 말 하는 것 좀 보소!

그러면 새끼야! 선생은 학생 그렇게 개패듯이 패도 되는 거야! 엉!

그래, 새끼들아! 내가 이번에 가만 넘어 가는 지 한번 보자!

59 교실(D)

윤주 앞에 앉아 있던 경실이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영희의 시선으로 바바리코트를 입은 남자, 갑자기 아아아아아~~~~하는 타잔 소리와 함께, 바바리코트의 앞부분을 획 열어 제낀다.

*박경실 (비명) 아아아악!!!

조용하던 교실이 갑자기 난리가 난다. 뭐? 뭐?를 외치며 경실 자리로 몰려오는 아이들! 두식 및 상학일당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경실 자리로 향한다.

*박경실 타잔!!! 타잔!!!

교실 유리창에 매미처럼 붙는 아이들. 어디? 어디?를 외치는 아이들

60 교장실(D)

교장실에서는 조봉팔 선생님에 대한 교장의 폭언이 이어진다.

*상춘식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인간이야! 당신이 짱패야!

선생주제에 감히 어디 학부형한테 대들어!

*조봉팔 죄송합니다.
 *상춘식 죄송하면 다야! 사람을 봐가면서 설쳐야 할 것 아냐!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조봉팔 (못 마땅한듯 춘식을 뺏히 바라본다) .
 *상춘식 뭘 썰려봐! 왜, 당장 목아지 찢라 쥐? 내가 못할 것 같애?
 *조봉팔 (인내에 한계에 도달한 듯 눈을 치켜 뜬다) .
 *상춘식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마지못해 인사를 꾸벅 하고 뒤돌아 서는 조봉팔.

*상춘식 감히 선생 주제에, 새끼가.

억장이 무너지는 조봉팔 선생. 하지만 참는다.

㉠. 교실(Ⅱ)

난리가 나는 아이들.

1. 눈을 막고 어머, 어머! 어쩔줄 몰라 하는 여학생
- 2 어떤 높은 거울의 빛을 반사 시켜 타잔의 그곳을 졸라 비추고
- 3 "에게게~ 그것도 고추라고 달고 다니냐~" 를 외치는 상학 패거리들
- 4 야이, 변태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를 외치는 경실과 윤주.
- 5 "아저씨 안녕? 요번에 또왔네~ 한동안 안오더니~" 등을 외치는 지혜 패거리들.

교실에서의 시선으로 타잔은 옷을 훌랑 벗고 온갖 우스꽝스런 포즈를 취하며
 학생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하다. 그때! 담임 조봉팔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교실로 들어
 온다.

*조봉팔 책 다 집어 넣어!

후다닥 책을 집어 넣는 아이들.

*조봉팔 눈감아!

일제히 눈을 감는 아이들. 조용해진 교실 안.
 카메라, 복도쪽에서 운동장 유리창을 향해 교실 전경을 잡으면,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실 전경과 함께, 유리창 너머 저멀리 타잔이 옷을 훌랑 벗고
 말그대로 생뚱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걸린다. (졸라 웃긴 행동)

*조봉팔 이게 학교야, 이 새끼들아!

아무리 교육이 썩었다, 썩었다 해도 어찌 학부형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난리를 쳐, 이 새끼들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창가에 앉은 경실이 실눈을 뜨면서 타잔을 훑쳐보고.

*조봉팔 (버럭) 눈 안감아!

화들짝 놀라며 두눈을 질끈 감는 경실. 아직까지 건물 위에서 온갖 우스꽝스런 포즈를 취하
는 타잔.

학생들의 시선과 관심은 온통 타잔에게 쏠려있다.

상학을 비롯한 아이들은 타잔의 모습을 훑쳐보며 웃음을 참느라 죽을 지경이다.

*조봉팔 이래가지고 선생이 무슨 학생을 믿고 교단에 서고,
학생이 무슨 선생님을 믿고 교육을 받아?

상학 꼬봉이 실눈을 뜨고 창밖을 훑쳐보면,

타잔은 아예 옷을 벗고 야리꾸리한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울랄라 춤을 추고 있다.

*조봉팔 잘못된 거 바로고치는데 이렇게 겁이 나서야 학생들 가르치겠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죽을고생인 상학 꼬봉!

킁킁대는 웃음을 참다 결국 킁! 하고 웃음이 터져 버린다.

*조봉팔 (뚜껑이 열린다) 뭐야!

전염병처럼 번져버린 웃음. 아이들도 킁킁대는 웃음이 새어나오고.

*조봉팔 김두찬이 나와!

아이 씨발 걸렸네. 란 표정으로 걸어 나가는 상학꼬봉!

나가면서도 창밖의 타잔을 바라보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

타잔은 자위행위를 흥내내더니. 절정에 이르러 드디어 오줌을 누기 시작하고,

그를 말리러 올라오던 몇몇 사람들이 오줌 세례를 맞는다.

그 틈을 이용해 타잔을 훑쳐보는 아이들. 타잔이 누군가에게 걸려 먹살을 잡힌 채 개처럼
끌려가고 있다.

웃음은 전염병이다. 또다시 킁킁대는 아이들. 조봉팔이 드디어 폭발한다.

*조봉팔 웃어?

상학꼬봉의 뺨을 후려치는 조봉팔.

*상학꼬붕! 그게 아니고.
*조봉팔 그게 아니고, 뭐?
*상학꼬붕! (창문을 가리키며) 저기 타잔이.

하지만 이미 타잔을 사라진 지 오래다.

*조봉팔 (아무도 없는 건물 위) 뭐, 타잔? 이 치타 같은 새끼가!

빠바바바박!!! 개 작살이 나는 상학 꼬붕

*조봉팔 웃기지? 웃기지? 나도 우습다, 이 새끼야!

하지만, 아이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죽을 지경이고.
상학 꼬붕은 여전히 교실 앞에서 조봉팔에게 개 작살이 나고 있다. 그때!

*최상학 (웃음을 참으며) 아이 씨발 그만합시다! 애 잡겠네!

순간! 상학꼬붕을 패던 조봉팔의 눈에서는 살기가 돌고!

*조봉팔 뭐?

상학 꼬붕을 내팽개치고 최상학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조봉팔.
여전히 빼딱한 자세로 두눈을 똑바로 뜨고 다가오는 조봉팔을 노려보는 최상학.
조봉팔이 상학의 자리에 다다르고.
일촉즉발의 상황

*조봉팔 뭐라 했어?
*최상학 (버릇없이 두눈을 치켜뜨고 조봉팔을 노려보고) .
*조봉팔 방금 뭐라 했어?
*최상학 (고개를 내리며 혼잣말) 씨발.
*조봉팔 뭐, 씨발? 이 새끼가!

조봉팔이 앉아있는 상학의 뺨을 때리려 손바닥을 날리자, 상학이 조봉팔의 손을 탁 잡는다.

*최상학 (반항적인 태도) 왜, 이러세요?

상학의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는 두식.

*조봉팔 아니, 이 새끼가!

다른 팔로 상학의 뺨을 한대 갈기는 조봉팔.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최상학이 조봉팔을 확 밀치고,
조봉팔 선생은 두식의 책상 위로 고꾸라 진다.

*최상학 (선생님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확, 씨발.
선생이면 애들 막 패도 되는 거야?
(애들을 향해) 야! 씨바, 경찰 불러... 경찰...!

눈이 뒤집히는 두식. 드디어, 두식의 분노가 폭발한다.

----- 슬로우 모션 -----
조봉팔 선생을 일으켜 세운 뒤

책상을 옆으로 거칠게 밀치며.

상학의 앞으로 다가가는 두식.

이 새끼 뭐야? 하는 표정으로 두식을 바라보는 상학. 바로 그 자리에서 최상학의 귀싸대기를 올리고,
주먹으로 쌍팔을 날리고, 발로 차고, 지근지근 밟고, 책상으로 찼고.
피투성이가 된 최상학의 먹살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한대씩 면상을 날리며 괴성을 토한다.

*계두식 이런 싸가지 없는 노무 시키가. 퍽!
두사부 일체! 퍽!
두목과! 퍽!
스승과! 퍽!
아버지는! 퍽!
하나다! 퍽!
알겠어, 새끼야! 퍽!
무슨 말인지 알겠냐구, 이 호로새끼야! 퍽!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어 책상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하는 상학.
두식은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고 다시 애들한테 돌아서 광분한다.

*계두식 (흥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 오늘부터!
서서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새끼들은!
내가 즉사시켜버리겠어! 즉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쁜 노무 시키들아!

여전히 씩씩거리는 두식. 병~~ 찼 아이들. 그때, 팍! 하며 두식의 뒷통수를 내리치는 조봉팔

선생.

두식이 전사한 두식 앞으로 벌러덩 내자빠지며 화면 어두워진다.

62 교실(N)

야간 자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상학이 얼굴이 반탱이가 된 채 불쌍하게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다.

그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은 두식. 상학에게 다가가 상학을 깨운다.

부시시 눈을 뜨다 두식임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상학.

63 한강 교수부지(N)

소주 두병이 두식과 상학의 옆에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고,

마른 오징어 다리를 질경질경 씹고 있는 두식과 상학. 이미 약간은 취해있는 모습

*계두식 상학아, 넌 꿈이 뭐냐?

*최상학 꿈?

*계두식 그래, 꿈!

*최상학 난, 조직의 보스가 될거다.

움짤하는 두식

*최상학 어차피 이 돌대가리가 공부로 성공하기는 글렀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거는 이 주먹 하나 뿐인데.

멋있지 않냐?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밤의 황태자...

*계두식 조직의 보스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냐?

*최상학 당근이줘!

*계두식 상학아!

*최상학 .

*계두식 너, 이렇게는 생각 안해 봤냐?

*최상학 .

*계두식 (취해있는 상태) 조직의 보스라는 자리는 말이다.

밤마다 잠을 쉽게 잘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직업이란 말이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말이야, 언제 어느 놈이 사시미 칼 들고

문파고 들어올까 문을 꼭 잠그고 자야 돼. 그리고 항상 머리 말에

는 이만한 닛본도를 숨겨 놓고 잠을 자지. 그리고 어제까지 내가

귀여워하고 아껴주던 내 부하가 오늘 내 뱃가죽을 찌르는 적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열두번이 넘는 싸움터에서 내일이란 단어를 기억할 수 없는 게 바로 조직의 보스라는 직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최상학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또다시 움찔하는 두식

*계두식 한잔하자!

건배를 하며 소주를 한잔 쭈욱 들이키는 두식과 상학. 그

때!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두식의 뒷통수를 내리치는 혁삼!

두식이 뒷통수를 부여 잡으며 아야야야야~~

*혁 삼 어이, 오랜 만이다, 상춘!

일순간 얼굴이 파래진 상학이 벌벌 떨면서 두식의 뒤로 몸을 숨기고,

혁삼 일당들이 이런 두식과 상학을 바라보며 킁킁댄다.

*혁 삼 (상학에게) 요즘도 너희학교 선생들이 애들한테 뺨뜯냐?

두식이 상학에게 저새끼는 뭐냐? 하는 표정을 짓지만 상학은 여전히 두식의 뒤에서 어쩔 줄 몰라한다.

*계두식 (뒷머리를 메만지며 상학에게) 저 새끼들 뭐냐?

기습으로 두식의 얼굴에 한방 날리는 혁삼. 두식이 파당~ 하고 구석에 고꾸라 진다.

상학이 두식에게 후다닥 달려가고

*계두식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 쪽팔리게.

두식의 뒤로 숨는 상학. 킥킥거리는 혁삼 일당.

*혁 삼 생 쏘를 해라, 쏘를.

두식, 상학을 한심한 듯 바라보며 거리낌 없이 혁삼 앞으로 다가간다.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두식.

*계두식 (혁삼에게 걸어가며 혼잣말) 하, 씨발. 학교 들어와서 참 여러가지 하네. (혁삼의 코 앞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야, 너희들 뭐냐?

움마야, 무서버라~ 표정 짓는 혁삼과 뒤에서 킁킁대는 일행들.

*혁 삼 (돌아서는 듯하며) 옴마야 무서버라...
 이거 상춘 아들 무서워서 어디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냐?
 *계두식 야, 혼자서 씹닥거리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일대일로 맞장 뜨자.
 *혁 삼 뭐, 씨. 씨. 씹닥?
 *계두식 야! 연장 들기... 아니 다구잡기 없이 맨주먹이다. 지는 새끼는...

얘기가 끝나기 전에 무차별로 공격해 들어오는 혁삼일당.

으아아아아~~~~~ 공중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두식.
 주풍 낙엽처럼 두식의 주먹과 발차기에 나자빠지는 혁삼 일당.
 몇번의 치고 받는 일전이 일어나지만 혁삼 일당은 두식의 상대가 되지를 못한다.
 (뮤직비디오처럼 화려한 액션)

[점프]

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혁삼 일당.

*계두식 (훈시) 학생이 말이야, 공부를 해야지 새끼들 쌈질이나 하고
 말이야! 학생의 본분이 뭐야, 본분! 공부야냐, 공부! 이 새끼야!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쓰잘떼기 없는 쌈질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니들이 깡패야? 니들이 조폭이야? 조폭애들 한번 데려다
 줘? 여기 데려다 주까? 맞짱 함 뜰래? 주저리주저리)

화면 어두워진다.

64 훈도실(D)

살살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조봉팔 선생과 대화.
 내신 성적부에 이윤주와 김지혜 사이에 빨간 줄이 쳐져있다.
 (윤주는 1등급 자리에, 김지혜는 2등급 자리에 위치)

*살살이 아, 왜이리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내 참 답답하네.
 *조봉팔 .
 *살살이 애 성적하나 고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조봉팔 (성적부를 가리키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혜 성적 올라가면 윤주가 특차를 지원할 수가 없대구요.
 내신 등급 자체가 바뀐다 말입니다~
 *살살이 어이, 조선생! 조선생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생이
 추천한다고 해서 윤주가 특차를 갈 수 있는게 아니잖소.
 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교장 추천서가!

아, 조선생이 이렇게 협력을 안하는데 조선생이 추천하는 학생을
교장선생님이 그래~ 하면서 허락을 할 것 같습니까?

*조봉팔 .

*살살이 그리고 윤주는 공부를 잘하니까 일반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봉팔 지금 윤주가 집 형편이 등록금 내면서 다닐 입장이 아니라서
하는 말 아닙니까?

교실(D)

너무도 조용한 쉬는 시간. 아이들이 두식의 눈치를 보고 있고,
두식, 수학 책을 펼쳐 놓곤 가우똥거린다.
그때, 경실이 교실로 들어와 윤주에게 다가온다.

*박경실 야, 봉팔이가 너 오래.

두식, 무심히 고개를 쳐들고.

*박경실 (두식의 눈치를 보고는) 아니, 조.. 조봉팔 선생님께서 너 부르서.

훈도실(D)

조봉팔이 살살이와 같이 보았던 내신 성적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윤주와 대화.
가슴이 답답한 듯 내신 성적부를 윤주 앞에 내 놓으며 야단을 친다.

*조봉팔 너, 공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할래?

*이윤주 .

*조봉팔 좀 확실히 못해? 이래서 내신등급 바뀌면 너 누구 원망할래, 영!

*이윤주 .

*조봉팔 너, 요즘 몇시간 자?

*이윤주 여섯시간요.

*조봉팔 잠 줄여! 고3이 여섯시간씩 자면서 무슨 대학 갈 생각을 해!

사당오락이란 말도 몰라!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놀아서 어떻게 개들보다 앞서?

*이윤주 .

*조봉팔 무슨 말인지 몰라?

*이윤주 ...

고개를 숙이고 있는 흐느끼고 있는 윤주. 두눈이 벌겍게 충혈되어 있는 조봉팔.

61 교장실(1)

교장 상춘식이 책상에 앉아있고, 영어교사 이지선이 결재를 받고 있다.
의자에 앉은 상춘식의 치켜뜨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상춘식 (서류를 바라보고 지선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거이거이거 봐.
이래가지고 무슨 담임을 하겠어? 이 선생반이 꼴찌잖아~

*이지선 (난처한 표정) .

*상춘식 (허벅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고) 마음이 그렇게 약하니까 애들이나
학부형들도 함부로 보는 거 아냐~

그때, 거칠게 상춘식의 손을 뿌리치는 지선. 당황하는 상춘식

*상춘식 왜그래?

*이지선 더 이상 이러지마세요!

*상춘식 왜그래, 이선생!

*이지선 (서류를 챙기며) 나가겠습니다.

황당한 표정의 상춘식. 문득, 멈춰서는 이지선, 돌아보면 상춘식, 인상을 쓴 채 담배를 꺼내
문다.

이지선, 상춘식의 인상을 살피다가 다시 돌아와 상춘식 옆에 앉는다.

상춘식을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보는 이지선. 상춘식, 웃으면서 담배를 이지선에게 건
넨다.

이지선, 평상시의 고혹스런 얼굴로 한모금 빨아서 상춘식 얼굴 위로 혹 내뿜는다.

62 교장실 앞(1)

문을 닫으며 교장실을 나오는 이지선.

구겨진 치맛자락을 탁탁 펴며 좌우를 살피며 바쁘게 자리를 뜨다가,

마침 지나가던 조봉팔을 보지 못하고 부딪친다.

*이지선 죄송합니다.

바빠 사라지는 이지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63 교장실(2)

교장이 개인 금고에 비밀 서류를 넣으며 책상앞에 서있는 살살이와 대화.

*상춘식 영어 선생 하나 알아봐. 요즘 여선생들은 1년을 못버티나.
 그리고 보면 예전에 김홍란 선생이 사근사근한게 좋았어.

*살살이 그래도 이선생이 실력은.

*상춘식 (살살이의 말을 무시하고 금고 문을 잠그며) 으이구,
 요즘은 학교 운영하기도 왜이리 어렵나.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찬조금도 그렇고.
 참, 지혜 성적은 어떻게 됐어?

*살살이 못 고치겠습니다.

*상춘식 미친놈. 지 무덤을 지가 파는군.

*살살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잘 타이르고 있으니까.

*상춘식 (말을 끊으며) 그게 시간 더 준다고 해결이 되나?
 지가 무슨 혁명군이라도 되는 지 알고 설치는 놔한테.

*살살이 .

*상춘식 (자리에 앉으며) 안되겠어.

*살살이 .

*상춘식 이번참에 빼딱한 교사들 한번 손좀 봐야겠어.
 이것들이 오냐오냐하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려고 그래.
 싸가지 없는 노무 새끼들...

교실(D)

교단에서 담임 조봉팔이 학생들에게 말한다.

*조봉팔 어제 얘기 했듯이 반장이 전학을 간 관계로 오늘 새로운 반장을
 선출하겠다. 자, 추천할 사람 있으면 자유롭게 추천하도록!

서로의 눈치를 보는 학생들.

*박경실 이운주를 추천합니다.

*학 생1 윤승현을 추천합니다!

*학 생2 허태구를 추천합니다!

*상학꼬봉1 최상학을 추천합니다!

애들이 웃음을 터트리고, 상학은 자신을 지명한 놈의 뒤통수를 때리며 난장판!

*조봉팔 장난치지 말고!

그때!

*이윤주 계두식을 추천합니다!

그 시간에도 열심히 수학 숙제를 하던 두식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교실 분위기 무지하게 가라앉는다. 서서히 고개를 들며 아이들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상학을 바라보면, 상학이 긴장 섞인 표정으로 씨익 웃는다.

[점프]

드디어 투표시간!

두식이 종이 쪽지에다 이윤주라 이름을 쓰는데.

[점프]

칠판에는 계두식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다.

*학 생! 이로써 계두식군이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B. G. N ♪♪ 축하합니다~ ♪♪ 축하합니다~ ♪♪ 축하의 음악 흐르면서,

상학을 비롯한 주위의 아이들이 과잉 충성하듯 열렬히 박수치고,
윤주도 아직까지 두식을 경계하며 박수친다. 정작 병쩍 사람은 다름아닌 두식. 멍~하니 칠판
을 바라본다.

7. 화장실 변기 칸(D)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하는 두식.

*계두식 상두야. 나, 반장됐다.

72 이미지 컷(D)

슬로우 모션으로 수화기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장면.
카메라 위로 올라가면 상두의 멍한 표정, 클로즈업!

73 월렛 사진관 앞(N)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 두식과 윤주.

*이윤주 (어렵게 말문 떼며) 반장된 거 축하해.

*계두식 으. 응. 고마워.

번쩍이는 네온싸인으로 둘러싸인 스타 월렛 사진관 앞에 멈춰서는 두식.

- * 계두식 이게 뭐야?
- * 이윤주 월렛 사진관.
- * 계두식 월렛 사진관?
- * 이윤주 모텔처럼 나오는 사진관이야.
- * 계두식 (윤주 바라보며) .
- * 이윤주 왜, 한장 찍고 싶어? 근데 이거 디게 비싼데.
- * 계두식 나, 돈있어!
- * 계두식 그래? (엇겍겍에 손을 잡고) 그럼 따라와.

(ins)

월렛 사진관 안에서 사진을 찍는 두 사람의 포즈.

예쁘장한 윤주와 달리 인상 험한 두식이가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주가 머리가 작게 나오려는 듯 두식의 머리를 카메라 앞으로 계속 들이대고 이게 뭐가?

하고 카메라 가까이 바라보는 사이 플래쉬가 퍽! 하고 터진다.

스트로보 연속적으로 돌아가면 커팅되어 한장씩 흐르는 포즈들.

사진을 바라보며 킁킁대며 사진관을 나오는 두식과 윤주.

74 나이트 클럽 안

나이트 클럽 무대 정면에는 축! 반장 선출, 계두식! 이라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붙어있고!

팅빈 나이트 홀에서는 두식과 대가리, 상두 세명이 술잔을 돌리며 술을 한잔하고 있다.

대가리가 두식의 옆에 착 달라 붙어 앉는다. 두식의 지갑에 꽂혀져 있는 윤주와의 사진을 훑쳐보는 대가리.

- * 김상두 어쩐지 매일 늦게 들어오신다 했더니.
- * 계두식 (술에 취해) 내 참 쪽팔리게, 이 나이에.
- * 대가리 저때 말한 짝인가 하는 그년입니까?
- * 계두식 (이 새끼가?) .
- * 대가리 (오버하며)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당장 그년 메가지를 잡고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빠구리 한판 줄라 뜨게 해주겠습니다!
- * 계두식 .
- * 대가리 씨발 기냥 빠구리 한판 뜨면 아, 지가 어쩔거야!
- (일어서서 허리를 까딱까닥거리며) 기냥 씨발, 앞으로. 뒤로.
- 늑히고. 돌리고.
- * 계두식 (뒤통수를 한대 뺨 때리며) 에라이, 이 새끼야!!!!
- 년 새끼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열정은 있는데.
- 기본이 안돼있어, 기본이! (또 때리며) 응, 이 기본이 안된 새끼야!

*김상두 형님,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자고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두는 두식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화면 어두워진다.

ㄷ 윤주 집 근처 골목길(N)

윤주가 앞장 서 걸어가고 있고, 두식이 옆에서 같이 걸어 간다.
걸어가면서 계속 시계를 바라보는 두식. (올 시간이 됐는데.)

*계두식 (계속 시계만 바라본다) .
*이윤주 (이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라는 표정) .

ㄷ 강남구 신사동 골목길(N)

대가리와 꼬붕들이 시계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대가리 야, 여기 맞냐?
*대가리꼬붕I 예, 맞습니다. 신사동 신사비디오 뒷골목 맞습니다.
*대가리 근데 왜 이리 안오시냐?

ㄷ 윤주 집 근처 골목길(N)

계속 길을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사람. 두식은 불안한 듯 시계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계두식 (계속 시계만 바라본다) .
*이윤주 뭐해?
*계두식 아, 아냐.

계속 시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두식. (올 시간이 됐는데.)

그때,

동네 양아치로 추정되는 건달들 네댓명이 건들거리면서 윤주와 두식의 앞으로 걸어온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두식.
고개를 좌우로 한번 꺾어 주고 멋있게 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양아치들이 다가오자 두식이 윤주 모르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한다.

그런 두식의 행동에 이상한 듯 자신들의 뒤를 한번 돌아 보는 양아치들.
다시 돌아 보며 미친 놈. 하는 표정의 양아치들.
여전히 히죽거리면서 양아치들의 앞으로 다가가는 두식.
윤주와 두식, 그리고 양아치들이 스치듯 지나가는데.

*양아치I 하, 고년 삼삼하게 생겼네.

음~ 짜식들 연기한번 리얼하네. 라는 표정의 두식.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뒤를 돌아 보는 두식.

*계두식 (근엄하게) 야, 너, 뭐라고 했어!

그냥 가자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두식의 팔을 끌고.
두식은 팔에 전해져 오는 짜릿한 느낌에 온 몸의 부르르 떨린다.

*양아치I (뒤돌아 보며 기가 찬다) 뭐?

78 강남구 신사동 골목길(N)

대가리와 꼬봉들이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데, 대가리의 핸드폰이 울린다.
대가리와 상두의 전화 통화 교차 편집

*대가리 여보세요?

*김상두 나다.

*대가리 (짜증) 아이 새끼, 왜 또 전화질이야?

*김상두 걱정이 되서 전화했다.

*대가리 지랄하네, 니 모가지나 걱정해라, 이 새끼야.

형님 눈에 좀 들었다고 눈까리 비는 게 없는 모양인데.

*김상두 너, 거기 은평구 신사동 맞냐?

*대가리 뭐?

*김상두 너, 혹시 거기 강남구 신사동 아니냐?

*대가리 신사동이 강남에 딸고 또 있냐?

*김상두 내 그럴 줄 알았다.

79 윤주 집 근처 골목길(N)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두식과 윤주의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양아치들.

*계두식 (최대한 멋있게) 내 여자 친구한테 사과해라!

그 모습에 기겁을 하며 두식의 팔을 잡아 끄는 윤주.

그런 상황이 너무나 우스운 듯 혼자 웃다가 양아치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두식.

저 새끼가 미쳤나? 하는 표정의 양아치들.

80 자동차 안(N)

대가리 꼬봉1이 운전을 하고 있고 조수석의 앉은 대가리 꼬봉2는 도로지도책을 보고 있고, 자리에 앉은 대가리는 속에 열불이 난다.

*대가리꼬봉2 (지도책을 보며) 아, 씨발 은평구가 어디야?

*대가리 (꼬봉2의 뒤통수를 때리며) 빨리 찾아봐, 이 새끼야!

81 윤주 집 근처 골목길(N)

두식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양아치1. 기겁을 하고 두식의 뒤에 붙어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윤주.

히죽히죽 거리며 계속 해라는 표정의 두식. 이 새끼는 분명히 미친 놈이야. 라는 표정의 양아치1

*양아치1 너, 시방 뭐라고 했냐?

*계두식 (근엄하게) 내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다.

*이윤주 (사시나무 떨 듯 떨며) 두식아, 왜 그래?

*양아치1 못하겠다면?

*계두식 그럼 할 수 없지. 덤벼라.

빨리 요기 한대를 먼저 때려~ 하며 자신의 뺨을 가리키는 두식. 하, 미친놈 하는 표정의 양아치1.

뽕!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두식. 기겁을 하며 두식을 부축하는 윤주

*이재은 도대체 왜이래요! 저리가요! 안그러면 경찰 부를거예요!

힘겹게 바닥에 앉으며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보는 두식.

(아이 씨발 장난이 아닌데~ 라는 표정의 두식)

야이, 씨발 이렇게 세게 때리면 어떻게! 라는 표정의 두식.

맞아 저 새끼는 확실한 또라이야. 라는 표정의 양아치들

*계두식 (이번엔 살살 때려라~ 잉 하는 시늉을 하며)

짜식들, 주먹이 좀 맵군.

*양아치! 좀 맵지.

*계두식 오늘 안됐지만 너희들 혼 좀 나아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양아치들. 우와와와와!!!! 하면서 두식에게 개떼같이 몰려드는 양아치들.

빠빠빠빠빠!!!! 양아치4명으로부터 몰매를 맞는 두식. 개작살이 난다.

옆에서 싸움을 말리지만 역부족인 윤주. 화면 어두워진다.

82 나이트 클럽 안

바닥에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대가리 일당 및 김상두 일당들.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두식이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놈의 엉덩이를 무지막지하게 발로 걷어차며 분풀이.

*계두식 똑바로 박아, 이 새끼들아!

화면 어두워진다.

83 교장실(D)

심각한 표정으로 비상 징계 위원회가 열린 교장실.

이사장 사람들과 교장 그리고 지혜모 등 여러 학교 관계자가 참석해 있다.

조봉팔,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84 교실(D)

눈탱이가 반탱이가 된 채 책을 보고 있는 두식을 윤주가 불쌍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

*이윤주 팬찮아?

두식이 씨익 웃으며 팬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둘의 다정한 모습을 질투의 눈길로 바라보는 지혜. 비웃듯 두식과 윤주를 바라본다.

그때, 교실로 뛰어 들어오는 경실. 울상 섞인 표정으로 윤주에게 소리친다.

*박경실 큰 일났다, 큰 일! 조봉팔 선생님 짤렸대!

모든 학생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변한다. 웅성웅성거리는 교실 풍경.

특히 거의 충격을 받은 윤주와 윤주를 걱정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는 두식.

85 교무실(D)

이지선 선생을 비롯한 대여섯명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짐을 싸고 있고,
일부 여 선생님들은 결국 울음을 터트리며 자리에 주저 앉는다.

86 교실(D)

교실 문이 열리고 조봉팔이 교단으로 걸어온다. 사태를 알고 있는 듯 침울한 표정의 아이들.
화면 어두워졌다 밝아지면, 아무일 없는 듯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조봉팔 선생.
그때,

*박경실 선생님!
*조봉팔 왜?
*박경실 선생님 그만두신다는 거. 맞아요?

앵?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여? 라는 표정의 두식. 당황한 조봉팔, 하지만 이내 진정한다.

*조봉팔 (다시 칠판으로 돌아서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

카메라, 학생들의 얼굴 표정을 잡으면, 무표정한 상민수. 비웃는 듯한 표정의 김지혜.
슬픈 표정의 경실. 눈이 충혈된 떠벌이. 여전히 자빠져 자는 상학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진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두식.

87 림싸롱 림 안

두식이 상두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상두 예? 조사요?
*계두식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알아보란 말야!
씨발. 뭘 놈의 학교가 선생님을 그렇게 막 잘라?
*김상두 누가 잘렸는데요?
*계두식 우리 담임도 잘리고 이지선 선생님이라고 예쁜 여선생님도 하나.
*김상두 누구라구요?
*계두식 이지선.
*김상두 (벌떡 일어나며) 정말입니까!

*계두식 야. 왜 그래?

88 교실(D)

아침 자습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두식의 옆에는 윤주가 보이질 않는다.
두식이 윤주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경실에게 물어본다.

*계두식 윤주 안왔어?

*박경실 응. 어제 같이 안갔어?

*계두식 응.

다시 책을 펴지만 윤주의 빈자리가 자꾸 신경쓰이는 두식.

89 몽타쥬

1.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

책상에 앉아 볼펜을 빙글빙글 돌리며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두식.
비어있는 윤주의 빈자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2 경실과 식당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두식과 경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두식의 표정이 웬지 불안해보인다.

3 경실과 같이 버스 정류장에 서있다. 윤주가 집 알아? 라고 묻는 두식.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 고 대답하는 경실. 경실이 버스를 타고 가면
두식이 홀로 버스 정류장에 쓸쓸히 서있다.

90 대로 변(N)

두식이 힘없이 대로를 걷고 있고, 잠시 후, 그 옆으로 검은 승용차가 한대 멈춰 선다.

*대가리 (차에서 내리며) 형님!

91. 대로변 자동차 안(N)

*계두식 (피곤한 듯) 학교 근처엔 오지마라 했잖아~

*대가리 이 근처에 불일이 있어서 그냥 가는 길에... 헤헤.

*계두식 .

피곤한 듯 쇼파에 털썩 주저 앉는 두식.

*대가리 (웨이터에게) 야, 세리하고 미라 불러와
*웨이터 예!

웨이터가 나가자 대가리가 피곤한 듯 쇼파에 기대 있는 두식에게 말한다.

*대가리 (박카스를 건네며) 힘드시죠?
*계두식 (귀찮다는 듯 박카스를 받아 마시며) .
*대가리 간만에 회포한번 푸십시오.
*계두식 차식. 아, 피곤하다.
*대가리 저, 형님!
*계두식 .
*대가리 명동에 실비아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계두식 .
*대가리 그 쪽에 관리가 영 엉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상두가 말고 부터는 매상도 예전같지 않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두식 .
*대가리 제가 한번 말아서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한번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때, 웨이터가 아가씨를 데리고 룸으로 들어온다.

*웨이터 아가씨 데리고 왔습니다.

웨이터의 뒤를 따라 룸으로 들어오는 두명의 아가씨. 그런데. 한명의 아가씨는 다름아닌
윤주.

쇼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힘없는 눈빛으로 아가씨를 바라보던 두식.
서서히 고개를 들던 윤주의 눈빛이. 동시에 딱 마주친다. 말문이 막혀버린 두사람.
우째, 이런 개 같은 일이.

*대가리 (아가씨는 보지도 않고 손을 내저으며 눈치없이)
야, 조금만 있다 들어와.

한참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던 윤주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뒤흔쳐 나간다.

*대가리 (계속 말을 하며) 진짜, 맡겨만 주신다면 제가 한달 안에 예전의 매상으로 바로 복귀.

입 닥치라는 듯 대가리의 귀싸대기를 한방 날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몸을 뒤흔쳐 나가는 두식.

*대가리 (볼테기를 메만지며) 아, 씨발.
진짜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93 룬싸롱 룬 안

억장이 무너지는 듯 연신 줄담배를 피며, 한숨을 내쉬며, 윤주를 측은한 듯 바라보는 두식. 윤주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계두식 언제부터 이런데 나왔니?
*이윤주 어제. (두식을 힐긋 보고) 요.
*계두식 (아~~~ 씨발.)
*이윤주 .
*계두식 너같이 공부잘하고 착한 애가 이런 데 왜 나와?
*이윤주 .
*계두식 돈 때문이니?
*이윤주 .
*계두식 말해봐, 돈 때문이야?
*이윤주 응. (두식을 힐긋 보고). 예.
*계두식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이윤주 예.
*계두식 (편하게 하래두ㄷ).
*이윤주 응.
*계두식 2차도 나갔어?
*이윤주 (고개를 가로 젖는) .
*계두식 (후우~ 다행이다.) .
*계두식 애들은 너 이런데 나가는 거 아니?
*이윤주 (고개를 가로 젖는) .
*계두식 그래.
*이윤주 .

94 룬싸롱 홀

룸싸롱 홀에서는 대가리와 꼬봉들이 도대체 두목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때,
상두가 헐레벌떡 룸싸롱 안으로 들어와 대가리에게 다가선다.

*김상두 또 뭔일이냐?
*대가리 (짜증) 몰라~ 씨발~ 일단 집합시키라고 해서.
*김상두 너 또 무슨 사고 쳤냐?
*대가리 이 새끼는 내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줄 아냐?
*김상두 아니냐?
*대가리 이 새끼가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아냐?

또다시 일촉즉발의 상황. 대가리 꼬봉들과 상두 꼬봉들이 서로에게 다가선다.

95 룸싸롱 룸 안

심각한 표정의 두식. 이미 두눈이 젖은 윤주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이윤주 나, 돈 벌어야 돼~ 나도 공부 계속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어.
*계두식 .
*이윤주 근데, 이젠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이 학교 졸업하기도 힘들어~
아버지 부도난 뒤부터는 수업료도 선생님이 다 내줬는데,
이젠 대신 내줄 사람도 없잖아~
아빠는 공사판에서 노가다하고 있고, 엄마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 이렇게라도 안하면 어떻게 해.
*계두식 윤주야!
*이윤주 .
*계두식 오늘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이윤주 .
*계두식 너 다신 이런데 나오지 마라.
*이윤주 .
*계두식 그리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꼭 합격해라.
내 무식하고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너 대학 보낼 돈 정도는 있다.
대학까지 내가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윤주 .
*계두식 왜, 약속하기 싫어?
*이윤주 .
*계두식 짜식, 그냥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마, 짜샤!

니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돈벌면 다 갚아야돼!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이윤주 (두 눈망울에서 그렇그렇 눈물이 맺힌다.) .

*계두식 (두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너!

학교가서 내가 깡패라고 소문내면!

너 술집다닌다고 나도 소문낼거야, 알겠어?

*이윤주 (고개를 끄덕이는 윤주) .

그렇그렇 눈물이 맺혀있는 두사람은 눈길이 계속 이어지고.

96 림싸롱 림 안

여전히 살벌한 분위기.

*대가리 왜, 형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냐?

*김상두 (특유의 무표정으로 대가리를 바라보다가) 세상 너 다 가져라.

*대가리 (코 앞에 다가선다) 아니 이 새끼가.

97 림싸롱 림 안

*계두식 (눈물을 훔치며) 근데, 너 여기에 누가 데려왔어?

*이윤주 .

*계두식 친구랑 왔어?

*이윤주 (고개를 가로 젓는) .

*계두식 그럼?

98 림싸롱 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가리가 상두와 맞장 뜨기를 원하는 듯 자켓을 벗고 있다.

상두도 대응하겠다는 듯 자켓을 벗어 자신의 꼬붕에게 맡긴다. 일대일로 맞선 상황.

대가리가 손깍지를 끼며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고, 고개를 좌우로 꺾으며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는 찰라! 뽉!!!!!! 누군가에게 뒷통수를 맞은 대가리가 앞으로 자빠질 듯 자빠질 듯 하며 상두의 품으로 고꾸라 진다.

바닥에 자빠진 대가리를 발로 자근자근 밟으며 울분을 토하는 두식.

*계두식 야이 새끼야, 니가 인간이야, 이 새끼야! 재 몇살인 줄 알아!

내가 언제 미성년자 고용하라 그랬어, 이 새끼야! 퍽! 퍽! 퍽!

내가 이 새끼야 언제 어린 애들 몸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

개 작살이 나는 대가리. 씹씹거리던 두식이 돌아서 직원들을 향해 광분을 한다.

*계두식 잘들어! 오늘부터! 우리 구역에서 미성년자 쓰는 개새끼들은!
내손으로! 즉사시켜버리겠어! 즉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99 계두식의 집 거실(D)

두식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창문 너머 먼곳을 응시하며 찻잔을 홀짝거리며 마시고 있고,
상두가 두목의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

*김상두 (서류봉치를 들이 밀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계두식 (서류봉치를 받으며) 어, 그래. 뭇좀 알아냈냐?

*김상두 (한숨을 내어 쉰다) .

*계두식 왜?

*김상두 (어렵게 말을 꺼낸다) 상춘재단.

신동방쪽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두식 (아니, 우째 이런 일이.) 뭐, 신동방?

*김상두 예, 재단이사장 상진만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강남의 쇼핑센터,
얼마전에 모두 신동방 쪽에서 접수한 것 같습니다.

*계두식 뭐? 언제?

*김상두 예, 접수한 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거기에 다닌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구요, 아마 그냥 상진만의 뒤를
신동방쪽에서 봐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예전에 저희한테도
한번 컨택이 들어왔었거든요~

*계두식 하, 내 어쩐지 학교가 꼭 무슨 조직 같다 했더니.

*김상두 아직 그쪽에서는 형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다닌다면 졸업장 따는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계두식 내참, 어째 하필이면.

*김상두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두달 다니다가 졸업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일이 커집니다. 개들은 전국구 입니다.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들 건들었다가는 전쟁입니다.

*계두식 아, 씨바.

100 교실(D)

아침 자습시간. 두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윤주가 옆 자리에 털썩 앉는다.

윤주가 두식을 바라보지만 두식은 모른 체 책에만 집중한다.

그런 두식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스런 미소를 짓는 윤주.

그때, 한 여학생이 호들갑을 떨며 교실로 뛰어 들어온다.

*여학생! 야, 야 빅 뉴스! 빅뉴스!

101. 컴퓨터실(D)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웅성웅성거리는 아이들.

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여는 경실과 떠벌이, 그리고 두식.

심마니 메인페이지가 화면 가득히 잡히고! (요거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요~)

검색창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글씨가 쳐진다.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 인서트 -----

서울시 교육청이라 적힌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명하게 보이는 상춘고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102 교장실(D)

교장 상춘식과 교무주임 살살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살살이 잘 사는 집 아이는 공부를 안해도 내신 성적이 1등급이고,
못 사는 집 아이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신성적이
올라가지 않나요, 올바른 선생은 모두 누명을 씌워 짚라내고.

교육청에서 걸려온 전화 앞에 급실거리며 대답하고 있는 상춘식

*상춘식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만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아. 그제. 죄송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건
(갑자기 전화 끊어지자 수화기를 내던지며. 심각하게 흥분해서)
씨발. 어디다대고 반말이야. 지금. 어디어디 올라갔어?

*살살이 교육청 뿐만 아닙니다.
감사원, 청와대 민원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춘식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 씨발. 도대체 누구야?

*살살이 내용으로 봐서 교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생각난 듯) 혹시.

103 교실(D)

새로 바뀐 영어 선생이 칠판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고,
윤주와 두식이 열심히 따라 적고 있는데,
윤주가 낡은 형집 지갑(예전의 생리대 지갑)을 두식에게 건넨다.
두식이 화들짝 놀라 윤주를 쳐다보면 열어봐 라는 표정을 짓는 윤주.
두식이 윤주의 눈치를 보고는 손을 떨면서 지갑을 열면 쪽지 하나와 스티커부적이 들어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유행인 대학합격 부적)
(쪽지 내용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뤄진대!)
필기를 하던 두식이 쪽지를 읽고는 고개를 들어 감동적인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본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들의 다정한 시선교환.
그때! 교실 앞문이 벌럭 열리면서 교장 상춘식이 씩씩거리며 들어온다.
(교단 앞의 수업중인 선생님은 안중에도 없다)

*상춘식 이윤주, 어딴어!

윤주가 뭔가하고 고개를 들어 상춘식을 바라보고,
씩씩거리는 상춘식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 두식을 바라본다.
아이들도 수업중인 선생님도 의아한 표정 (왜 저러지? 하는 표정)

*상춘식 (윤주를 발견하고) 이리 나와!

윤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가고, 두식은 뭘 일이지? 하는 표정.
윤주가 교실 앞으로 걸어나가는 와중에 상춘식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윤주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짹!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는 윤주.
갑작스러운 상춘식의 가격에 윤주가 뒤로 쓰러지면서 뒷머리가 책상모퉁이에 심하게 부딪친다.
그리고 입에서는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고 온 몸에는 가벼운 경련이 일어난다.
충격을 받는 계두식. 그런 윤주에게 달려가 다시 손으로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상춘식.
이미 정신을 잃은 윤주의 코에서는 검붉은 선지피가 터진다.

*상춘식 이년이 공부 좀 한다고 좋게 봐줬더니, 뭐 이런 나쁜 년이
다 있어! 이년이 학교 말아먹을 년 아냐! !@#%&

수업중인 선생님은 병쩡 표정으로 교단에 서있기만 하고,
두식이 책상을 밀치며 득달같이 달려나가 상춘식을 말린다.

*계두식 (윤주를 때리려는 팔목을 잡으며)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상춘식 (뒤돌아 두식이를 찌려보며) 이 새끼는 뭐야? 이거 안봐?
(두식의 뺨을 갈기며) 너도 한패야, 이 새끼야!

*계두식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 너무 심하십니다!

*상춘식 뭐? (다시 한대 뺨을 때리며) 심해? (짹!) 뭐가 심해!

(짹) 말해봐! (짹짹짹)

뜨아~ 표정을 짓는 최상학, 상학 꼬봉들, 경실, 지혜. (상춘식이 조. 조. 좇됐다. 라는 표정)

*상춘식 (여전히 씹씹거리고 일어서며) 대학? 대학 좋아하고 있네.
내가 너 퇴학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윤주, 얼굴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고 두식의 두 눈에서는 분노가 춤을 춘다.
상춘식이 교실을 나가자 두식과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진 윤주를 흔들어 깨운다.

*계두식 윤주야. 이윤주! 이윤주 정신차려!

정신을 잃은 윤주의 코에서는 계속 코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104 몽타주

1. 불의 전차같은 장중한 음악 깔리면서. (두식이 첫 등교를 했을 때와 같은 음악)
선혈이 낭자한 윤주를 등에 업고 학교 정문 앞을 열심히 뛰고 있는 두식.
(타잔맨은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교문 앞에 서 있다가, 달리는 두식에게 밀려 넘어진다.
펼쳐지는 바바리 안에는 짱구코끼리팬티.)

그 뒤로 아이들이 뒤따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각하지 않기 위해
교문을 달려들어오던 두식의 첫등교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2. 두식이 윤주를 업고 병원 복도를 정신없이 뛰는 장면.
윤주의 코와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계속 흘러 나와 두식의 어깨를 흥건히 적시고.
그 뒤를 아이들이 따라 뛰고 있다.

3. 윤주의 입에는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고, 의사들은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윤주의 눈동자를 뒤집어보며 플레쉬를 비추며 검진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도 윤주의 코에서는 계속 코피가 쏟아진다.

5. 학교 복도 게시판에는 윤주의 퇴학을 알리는 문서가 붙어있고.

6. 상춘고 운동장에서는 재단측의 비리에 항거하는 50여명 학생들이 머리에 띠를 메고
피켓을 만들어 농성을 하고 있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이런 장면을 화면에 담기위해 셔터를
눌러 대고,

7.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상춘식.

8. 기자들이 모여 있는 기자 회견장에는 조봉팔 선생 및 해직교사 8명이 눈물로써 양심선
언을 한다.

9 교장실에서는 교장 상춘식이 기자들을 모아 놓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다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5 계두식 집무실(N)

두식과 상두, 그리고 대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대가리 그냥 확 접수 해버릴까요?

*김상두 (대가리를 찢어보며) 형님, 절대 나서시면 안됩니다!

혹시 기자들이나 신동방쪽에서 알아보십시오.

문제가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두식 내참, 미치겠네.

*김상두 형님, 조직을 생각하십시오. 참는게 이기는 겁니다.

화면 어두워진다.

106 교실(N)

교실에서는 계두식의 자리를 중심으로 상학과 상학꼬붕,
경실과 떠벌이가 흥분한 표정을 지으며 두식을 닥달하고 있다.

*최상학 (흥분하여) 진짜 만나올거야?

*떠벌이 반장이 만나서니까 우리가 힘을 못받잖아!

*박경실 열받지도 않아? 윤주는 니 짝이야, 짝!

*최상학 반장!

마음이 편치 않은 두식, 애써 아이들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돌린다.

[점프]

아이들이 두식의 곁을 떠나며 한마디씩 내뱉는다.

*박경실 야, 가자, 가!

*떠벌이 뭐, 저런 겁쟁이가 다 있어.

*박경실 야, 야 그만해! 저런 인간을 반장으로 뽑은 우리가 바보지.

억장이 무너지는 두식.

101 두식의 집 공부방(N)

어두운 두식의 공부방 안. 두식이 책상에 앉아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보고 있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열면 월렛 사진관에서 찍은 윤주와 두식의 사진이 보인다.
사진을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식.

102 몽타쥬 두식과 윤주(N)

어두운 두식의 공부방 안. 두식이 책상에 앉아 책장에 꽂힌 책들을 바라보고 있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열면 월렛 사진관에서 찍은 윤주와 두식의 사진이 보인다.
사진을 들어 물끄러미

103 병실 안(N)

병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 멋진 정장차림의 두식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 두식과 윤주의 메인테마 흐르면서 -----

병실 안에는 팔 한쪽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던 윤주의 팔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의 말없는 시선교환이 이어지고. 두식이 다가가 윤주의 손을 꼬옥 잡아주면
윤주의 맑은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이때까지 참았던 설움을 토하듯이 한꺼번에 오열하며 쏟아낸다.
한참동안 이어지는 윤주의 통곡, 통곡. 말없이 윤주의 등을 두드려주는 두식. 가슴이 미어진다.

110 계두식 집무실(N)

두식과 상두, 그리고 대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김상두 안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신동방 쪽에 줄이 닿아 있는
놈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쪽 바닥이 피바다 됩니다.

*계두식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라는 것 아냐!

이게 그냥 보고 넘길 일이나고?

이때까지 사시미 칼들고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일 했으면

한번 쫓은 올바른 일도 해야 할 것 아냐!

(대가리에게) 그래, 안그래?

*대가리 (깜짝 놀라) 예?

뻑!

*계두식 회의를 하면 좀 집중을 해라, 이 새끼!

*김상두 형님, 이건 나이트 클럽 접수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학교입니다, 학교!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혹시 신동방 쪽에서 이번 일을 알아보십시오.
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졸업도 얼마 안남았는데 왜 자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십니까?

*계두식 이게 사소한 일이나? 하늘 같은 선생님을 자기들 재단인지
지랄인지 말 안듣는다고 기냥 찌르는 게 그 학교야!

돈 없어서 몸팔아서라도 공부하겠다는 애한테 돈 없다고
개 패듯이 패서 퇴학시키는 게 그 학교야, 이 새끼야!

그걸 그냥 놔 뒀? 그게 이해가 돼? (대가리에게)
말해봐! 이해가 돼?

*대가리 (멍하니 두식과 상중을 보다가 자신있게) 예, 이해 됩니다.

뻑!

*계두식 뭐가 이해가 돼, 이 새끼야!

*대가리 (눈치를 보다가) 아아. 이해가 안돼는데요...

*계두식 봐, 들었지? 이런 놈도 이해가 안된다잖아!

*김상두 형님, 물어볼 놈한테 물어보십시오!

*대가리 (이 새끼가. 하는 표정) .

*김상두 형님, 이번 한번만 제발 제발 들으십시오!

*계두식 (대가리를 바라보다 재떨이를 집어 던진다) 으아아아아!!!!

깜짝 놀라 양손으로 온 몸을 감싸는 대가리. 재떨이가 벽에 와장창 박살이 나며

화면 어두워진다.

III. 학교 정문 앞(D)

<한여름의 장마 비가 내리는 아침 무렵>

학교 정문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가는 두식.

그 옆으로 승용차가 한대 지나면서 흙탕물이 두식의 바지에 튈다.

아이 씨발~ 하며 기분이 상하는 두식.

그런데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시끌벅적하다.

두식,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봉팔 선생, 이지선 선생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이 교문 밖에서

출근투쟁을 하려는 듯 서있고, 굳게 닫힌 정문 사이로 학교 안에는 이를 저지시키려는

재단측 교사 및 학부모의 고향소리와 이러한 학부모와 재단측 교사들을 말리는

학생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진다. (타잔맨도 마치 학생처럼 여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한, 기자들이 이런 장면을 화면에 담기 위해 열심히 셔터를 눌러댄다.

*남선생1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학생 1 선생님!!! (학부모에게) 당신들이 뭔데 그래요!
*학부모2 (학생1을 달래며) 들어가! (학생들에게) 너희는 들어가!
*학생 2 (울부짖으며 학부형들에게) 당신들이나 가!
*학부모3 학생들 선동하지 말고, 빨리 꺼지라니까!
*학생 3 선생님!!!
*학부모1 당신 같은 교사들 필요없어!
*학부모2 학교 망신 그만큼 시켰으면 됐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학부모3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등등, 학생들의 울부짖음. 학부모들의 고함. 교사들의 눈물. 학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다.

미처 교문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의 학생들은 교문 밖에 있던 선생님 곁으로
다가가 학부모들에게 맞고함을 치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울고 불고 악을 쓰고.
기자들 때문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런 장면을 멍한 표정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두식.
잠시 후, 신동방과 조직원 대여섯명을 이끌고 등교하는 교장이
교문 밖에 있던 선생님과 일부 학생들을 뚫고 교문을 통과하려 한다.

*상춘식 (양심교사들에게) 학교 망신 그만큼 시켰으면 됐지!
무슨 낯으로 이 학교에 다시 와! 당신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때, 한 남자 선생님이 교장에게 달려 들며 먹살을 붙잡고,
그 와중에 신동방과 조직원들과 교문 밖의 선생님들과 심한 몸싸움이 일어난다.

----- 인서트(학교 정문 옆) -----

학교 정문 옆에서 싸움을 살피며 어디론가 핸드폰을 하고 두식

----- 인서트(사무실) -----

상두가 두식을 진정시키며 달래고 있다.

*김상두 그냥 조용히 빠져 나오십시오. 예. 예. 신동방과 애들일 겁니다.
절대 거기서 붙으시면 안됩니다. 형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힘겹게 교문을 통과한 상춘식 교장. 이번엔 신동방과 조직원들과 학생들간에 몸싸움이 일어
난다.

우리 선생님 들여보내 줘요! 선생님이 무슨 죄야! 당신이 물러가! 등등을 외치며 울부
짖는 아이들.

교장 상춘식은 대꾸도 않은 채 신동방과 직원들에 둘러 싸여 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전화를 하고 있는 두식의 옆으로 또다시 신동방과 행동대원
사시미를 선두로 한 무리의 신동방과 직원들이 지나간다. 그런 사시미의 모습을 빨리 바
라보는 두식.

새롭게 나타난 깡패들은 교문 밖에서 그 장면을 취재하려던 취재 기자들을 교문 밖으로 밀
어내며
취재를 막고, 양심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까지 행사한다.
학생들과 사시미를 비롯한 신동방과 직원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경실을 비롯한 학생들이 경호원의 제지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겁없이 깡패들에게 달려들던 상학도 상대가 되지 못한다.

----- 인서트(학교정문 옆)-----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담배 하나를 빼어 연기를 뿜어내며 그 비열한 싸움의 현장을 지켜
보는
두식의 눈빛에서는 감히 범접하기 힘든 냉정함이 흐른다.

새롭게 나타난 사시미를 비롯한 신동방과 깡패들은 교문 밖에서
양심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까지 행사한다.
교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을 개 끌듯이 떼어내는 폭력배들.
일부 선생님들은 머리채까지 잡혀 끌려 나오고, 일부 선생님은 바닥에 질질 끌려 교문과 떨
어진다.

----- 인서트(학교정문 옆)-----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두식.

*계두식 : 상춘고... 우리가 접수한다.

거칠게 핸드폰을 닫는 두식. 입에 물고 있던 담배 궐초를 허공으로 날리고,
교복의 목을 조이고 있던 버튼을 풀며 학교 앞 문방구 안으로 들어간다.

----- 인서트(사무실)-----

상두가 핸드폰을 닫으며 낭패란 표정을 지으며 한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여전히 교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을 개 끌듯이 떼어내는 폭력배들.
이리와, 개 새끼들. 시발 놈들이 간댕이가 부었나? 이리 안와?

일부 선생님들은 머리채까지 잡혀 끌려 나오고, 일부 선생님은 바닥에 질질 끌려 교문과 떨어진다.

교문 밖에 선생님들과 같이 있던 학생들이 악을 쓰며 그들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다. 그때!

* 계두식 으아아아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알루미늄 배트를 하늘 높에 쳐들고 난장판이 된 학교 정문으로 돌진하는 두식!

선생님들을 구타하고 있는 신동방과 조직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1. 허공을 나르며 이지선 선생의 머리채를 잡고있는 강패의 뒷통수를 알루미늄 배트로 후려치는 두식.
- 2 조봉팔 선생을 구타하던 두놈의 다리를 알루미늄 배트로 내리치는 두식
- 3 뒤에서 덮치는 강패들을 뒷통수로 받아버리는 두식
- 4 순간, 앞에서 날아온 강패의 주먹에 나가 떨어지는 두식
- 5 다시 그 놈과 몇차례의 주먹 교환끝에 박살을 내고,
- 6 다시 허공을 나르며 두세명을 한꺼번에 아작을 내는 두식.
- 7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사시미.
- 8 두식의 싸움 실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 9 갑자기 어디선가 각목, 몽둥이 등을 들고 나타난 20여명의 신동방과 조직원들.
- 10 20여명의 강패들과 치고 받는 육박전에도 전혀 꿀림이 없는 두식의 용감한 모습. 그 와중에 두식의 옷옷이 찢어지며 온 몸을 휘감고 있는 화려한 문신이 드러난다.
11. 그 모습에 놀란 경실, 떠벌이, 상학일당. 그리고 선생님들.
- 12 그러한 자신의 문신을 가리기 위해 허겁지겁 옷을 주섬거리며 입으려던 두식에게 사시미의 일격이 가해지고, 뒤로 벌렁 자빠지는 두식.
- 13 갑자기 대여섯명으로부터 물매를 맞는 두식.
- 14 두식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끝까지 발악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15 갑자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상학이 으아아아아!!!! 하며 두식을 무지막지하게 물매를 때리던 깡패들에게 겁없이 달려들지만

16 제대로 힘도 써보기 전에 나가 떨어진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경실과 떠벌이. 그때!

----- 슬로우 모션 -----

학교 정문으로 영동과 부두목 김상두와 대가리 일행이 조직원 30여명을 이끌고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타난다. 검은 선글래스에 검은 정장을 휘날리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의 상두와 대가리.

학교 정문에 다다른 영동과 조직원들이 선생님들을 구타하고 있는 신동방과 조직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 끝에 교문이 열리고 처참한 몰골의 선생님들이 영동과 조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 온다. 교문 안에서는 학생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두식을 선두로 영동파와 신동방파의 치열한 싸움이 운동장에서 벌어진다. 두식의 곁으로 다가오는 대가리

*대가리 형님, 괜찮으십니까?

학교 교실 유리창에서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계두식! 계두식! 을 외치고 있고, 또다시 피튀기는 액션.

교장실에서 신동방과 두목 신동규 일당의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운동장의 난투극을 지켜보는 상춘식과 살살이.

그러한 상춘식과 살살이의 모습을 노려보고 있는 이지선 선생 앞으로 상두가 허겁지겁 달려온다.

*김상두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112 교장실(D)

상춘식이 금고 문을 열고 서류를 급히 챙기고 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쿵! 하고 열리고 상두 일당이 쳐들어 오면 상춘식을 보호하고 있던 신동규 일당과 상두 일당 사이에 한바탕 혈전이 벌어진다. 그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서류를 가슴에 품고 사시나무 떨 듯 떨고있는 상춘식이 교장실 앞에 서있던 이지선 선생과 두 눈이 마주친다.

----- 인서트(운동장) -----

여전히 아수라장인 운동장! 그때! 교장실 유리창 사이로 김상두와 신동규 일당의 혈전을 목격하는 두식.

갑자기 학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덩달아 두식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가리.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교장실. 이 안으로 두식과 대가리가 뛰어든다.

113 운동장(D)

띠요~ 띠요~ 싸이렌을 울리며 도착하는 전투경찰차들.

1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 닥치며 화면 어두워진다.

114 학교 건물 현관 앞(D)

건물 현관 앞에는 경찰 사이카 세대가 불빛을 발하며 서있고, 그 옆으로 조봉팔,

이지선 선생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경실,

상학을 비롯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현관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두식, 상두, 대가리가 각각 두명씩 형사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어두운 건물 안에서 나온다.

두식의 수갑채워진 손에는 서류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115 교장실

상춘식이 금고 문을 열고 있고, 살살이가 상춘식의 책상 앞에 서있다.

*상춘식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며) 뭐? 경찰에서?

*살살이 예, 뭐 조사할 게 있다고.

*상춘식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조사? 무슨 조사?

*살살이 예. 그게 저도.

그때, 상춘식이 서류 봉투 안에 손을 쓰윽 집어 넣는다. 갑자기 인상이 일그러지는 상춘식. 손을 꺼내면. 똥이다. 그것도, 설사.

116 경찰서 안(㉠)

카메라 빠지면

경찰서 안에서 포박된 체 조사를 받는 신동방과 두목을 비롯한 신동방과 조직원과,
철창 안에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두식을 비롯한 수십명의 영동과 조직원들.
그 중 두식의 눈가에는 뭔가 뿌듯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고,
상두는 구석에 처박혀 씨팔씨팔거리고 있고, 대가리는 **TV**를 보며 눈물까지 글썽인다.
대가리를 향해 장하다는 눈길을 보내는 두식. 대가리, 눈물까지 훔치며 감격해한다.

*계두식 : 실비아 나이트, 잘 부탁한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대가리. 이런 씨발~ 하는 표정의 상두.

화면 어두워진다.

117 감방 안(㉠)

화면 서서히 밝아지면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웅한 감방안,

형복을 입은 초췌한 모습의 두식이 홀로 편지를 읽고 있다.

1. 허름한 자취방에서 꼬마 전등을 키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윤주

"오빠!"

2. 활기찬 대학 교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윤주

"잘 지내고 계시죠? 전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3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윤주.

대가리 일당들이 우루루 몰려와
이것저것을 막 시키며 윤주를 보고
히죽 웃는다.
손님들이 겁에 질려하지만 윤주는
게의치 않으며 미소로 주문을 받는다.

"어제 오랜만에 고3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학교에 갔었어요.
조봉팔 선생님도 잘 계시고, 학교도 너무
많이 좋아 졌더라고요.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다들 오빠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했어요"

4 경실과 떠벌이와 함께 미팅을 하는 윤주
사랑의 짹대기를 하는 듯 음료수 빨대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짹기를 하면
남자들의 모든 빨대가 윤주를 가리키고
경실은 그런 모습에 속이 상한다.

"대가리 오빠한테 오빠얘기 들었거든요.
옆방의 짹하고 맞짱뜨다가 독방에 갇히
셨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내가 자주 찾아뵙고
사식도 넣어 드려야 하는데 자주 못가서
미안해요. 제가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

5 윤주, 경실, 동근 일당이 학교로 찾아가
조봉팔 선생님과 교정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

"그리고 오빠, 오빠가 싸움 잘하는 건 알지만
되도록이면 캄뽕 안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연장들고 다구잡으면
줄라 아작나잖아요.
후후, 나도 이런 말 잘 쓰죠?
대가리 오빠가 가르쳐 줬어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했는데.)"

두식이 빙긋이 웃으며 편지지를 접는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빈 공간을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 서는 두식.

머리 위쪽 위치에 있는 창문을 향해 발돋움을 한다.

하지만 어둠 만이 가득한 창살.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뒷꿈치를 살며시 내리는 두식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주머니에서 뭔가를 뒤적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면

꼬깃꼬깃해진 쪽지 하나가 손바닥 위에 놓여진다.

그 쪽지를 펴보면.

스티커 부적이다.

(예전에 윤주가 건네주었던.)

그때, 한줄기 희미한 빛이

어두운 감방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화면 화악 밝아지며

*계두식 : 상두야, 이번에 나가면 어디 괜찮은 대학 한번 알아봐라.

[점프]

룸싸롱 안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 상두와 대가리의 심각한 표정 위로

스텝들의 자막.

